

GOVP1201614971

R 315.1985 × 361 ×

· ·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 이야기



성산일출봉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천연기념물 제420호」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 이야기

이용자를 위하여...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이야기」는 제주도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의 주요 통계자료들과 통계청 등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통계연보 자료는 출처 생략)

통계 자료의 수치는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0] : 단위 미만, [-] : 해당사항 없음, [...] : 자료 미상

사용된 통계 자료는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의 자료까지 수록 하였으나 일부 통계 자료는 통계의 특성(집계, 처리, 분석)상 해당연도 종료 후 익익년에 생산되므로 수록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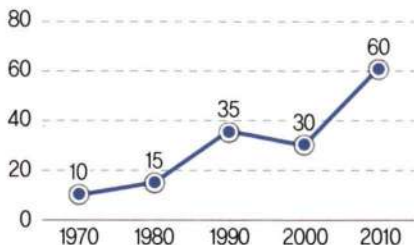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 064-710-237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발행기관인
제주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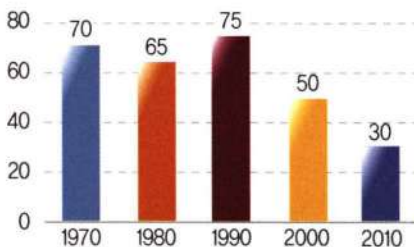
제주의 변화 모습 이렇게 확인하세요

꺾은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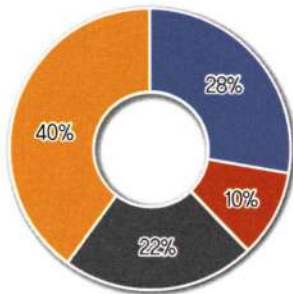
통계자료를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 그린 그림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막대 그래프



통계자료의 크기를 막대 모양의 길이로써 나타내어 그린 그림
- 수량의 많고 적음이나, 높고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는데 좋다.

원 그래프



원을 통계자료의 크기에 비례하게 중심각을 나누어 피자 조각을 나눈 형태를 갖도록 하는 그림
-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는데 좋다.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 자연환경

토지이용	토지는 임야와 밭으로 많이 이용 돼요	002
기상천기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004

두번째 이야기 인구

인구	2010년 이후 인구성장률 가파른 성장세	008
연령별 인구	노령인구 40년 사이 4배 쯤증	010
인구동태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출생 감소	012

세번째 이야기 경제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아서 고용지표가 양호해요	016
사업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아요	018
지역내 총생산	최근 50년간 1,300배가 넘는 GRDP 성장	020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 교육비가 많이 올랐어요!	022
건축 허가	건축경기는 활력이 넘쳐요	024
수출입 실적	무역규모 1990년 대비 16배 성장	026
농가 및 농가인구	전업농가는 줄고 겸업농가는 늘고 있어요	028
식량작물 생산량	식량 작물은 두류(콩, 팥 등), 서류(감자, 고구마 등)가 가장 많아요	030
채소류 생산량	제주 대표 월동채소 무와 양배추	032
감귤 생산	감귤은 조생품종 비율이 가장 높아요	034
가축사육	가축 사육농가는 감소했지만, 사육규모는 크게 증가	036
어가 및 어가인구	어가 전업비율 줄고 어가인구 남녀 성비는 비슷	038
어선 보유	어선 중 85.6%가 10톤 미만 소형 어선	040
수산물 어획고	어류가 어획량의 80% 차지, 해조류는 갈수록 감소	042
주요 어종별 생산 추이	주요 어종 어획량 정책, 양식 넙치(광어) 증가세	044



CONTENTS

네번째 이야기 **관광**

관광객	하늘 길을 이용한 제주방문, 개인 여행이 대세	048
관광지	자연경관이 최고의 관광자원!	050
박물관	박물관에 가면 제주가 보여요	052
문화공간	문화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054
해수욕장 이용객	해수욕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056
관광사업체	2000년 이후 관광사업체 가파른 상승	058

다섯번째 이야기 **주거환경**

주택현황 및 보급률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빠르게 증가해요	062
주택 점유형태	월세 비율 갈수록 높아져	064
상수도	급수 어려움 극복, 상수도 보급률 100%	066
전력사용	전력사용 50년새 1천배 증가	068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070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 추세	072
전문대 및 대학교	대학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074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076
체육시설	1990년 이후 체육시설 3.7배 이상 증가	078
도로	사통팔달, 한시간이면 어디든지	080
자동차 및 주차장	자동차 보유비율 전국 최고	082

여섯번째 이야기 **안전/보건/복지**

풍수해 발생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들	086
교통사고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증가 추세	088
의료기관	100세까지 건강하게	090
의료기관 종사인력	의료인력 1인당 89명의 도민 담당	092
건강보험 적용인구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한 삶 보장!	094
국민연금 가입자	1990년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10배 가까이 증가	09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급자 2만명, 맞춤형 혜택	098
사회복지시설	튼튼해지는 복지시설 인프라	100



첫번째 이야기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002 토지이용
토지는 임야와 밭으로 많이 이용 돼요

004 기상천기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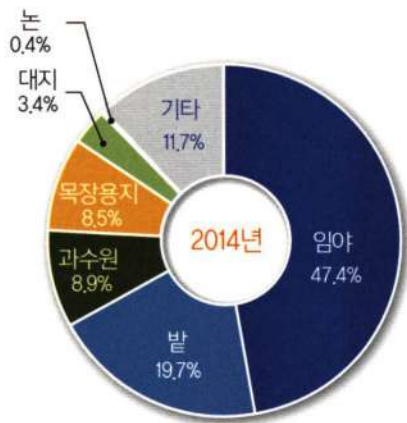
토지는 임야와 밭으로 많이 이용 돼요

제주도의 총면적은 1965년 1,811.4km²에서 2014년 기준 1,849.0km²로 37.6km² (2.1%) 정도 넓어졌다. 토지이용 용도로는 1965년 임야 1,224.5km²(67.6%), 밭 454.3km²(25.1%)이 제주도 총 면적의 92.7%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과수원 91.0km², 목장용지 24.7km²로 이용되어 토지이용이 다양화 되었고 임야, 밭 면적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기타용지가 조금씩 늘어난 반면, 밭, 임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제주 토지이용 용도는 임야 876.2km²(47.4%), 밭 364.8km²(19.7%), 기타 216.2km²(11.7%), 과수원 164.3km²(8.9%), 목장용지 157.7km²(8.5%), 대지 63.0km²(3.4%), 논 6.9km²(0.4%) 순으로 크다. 기타는 도로, 학교용지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임야 ■ 밭 ■ 논 ■ 대지 ■ 기타



■ 임야 ■ 밭 ■ 과수원 ■ 목장용지 ■ 대지 ■ 논 ■ 기타

토지이용

1960년대 토지 대부분이 임야, 밭으로 이용됨
현재는 과수원, 목장용지 등 용도 다양화

(단위 : km²)

연도	총면적	밭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기타
1965	1,811.4	454.3	9.4	-	-	1,224.5	24.8	98.4
1970	1,819.6	504.4	10.1	-	-	1,165.4	29.9	109.8
1975	1,820.0	496.0	9.7	-	-	1,164.9	31.8	117.6
1980	1,824.9	420.0	9.4	91.0	24.7	1,111.2	36.7	132.0
1985	1,824.8	417.8	9.4	91.8	68.7	1,068.0	38.0	131.1
1990	1,825.6	387.4	9.1	123.4	164.0	962.3	41.5	138.1
1995	1,845.4	365.3	8.8	158.7	183.8	945.5	40.7	142.6
2000	1,846.3	346.2	8.3	186.8	181.2	925.6	45.0	153.3
2005	1,848.3	364.8	8.0	169.1	171.7	906.6	50.5	177.5
2010	1,848.8	368.5	7.3	164.8	163.6	887.5	56.1	201.1
2014	1,849.0	364.8	6.9	164.3	157.7	876.2	63.0	216.2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연안에 난류가 흘러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다.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눈이 내리는 날이 많다.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6개 관측지점(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에서 약 100년간 (1912년~2000년) 관측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기온이 1.7°C 상승하였다. 제주의 평균기온 역시 1980년대까지는 15°C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16~17°C로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재해, 산림·토양 및 해양생태계 변화, 농업 및 축산업에의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니터링과 대비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상천기

**강수량은 서귀포가 많고,
눈이 내린날은 제주시가 많아요**

(단위 : °C, mm, 일)

연도	평균기온		연간 강수량		강수일 (0.1mm이상)		눈이 내린 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1965	15.0	15.5	1,161.2	1,514.9	125	133	24	19
1970	14.6	15.4	1,301.9	1,731.6	147	161	14	4
1975	15.7	16.2	1,280.4	1,660.5	161	146	26	12
1980	14.6	15.3	1,545.6	1,721.4	169	149	37	24
1985	15.4	16.1	2,420.6	3,244.3	143	132	...	16
1990	16.4	17.1	1,544.5	2,398.6	130	132	12	5
1995	15.6	16.0	1,472.9	2,280.4	118	110	19	8
2000	15.7	17.2	1,189.4	1,368.5	118	119	18	6
2005	16.2	16.2	872.5	1,390.6	124	125	33	20
2010	15.6	16.9	1,584.9	2,393.3	149	146	17	14
2014	16.2	17.0	1,563.4	2,473.2	185	146	18	10



두번째 이야기

인구

Population

- 008** 인구
2010년 이후 인구성장률 가파른 성장세
- 010** 연령별 인구
노령인구 40년 사이 4배 꺾춤
- 012** 인구동태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출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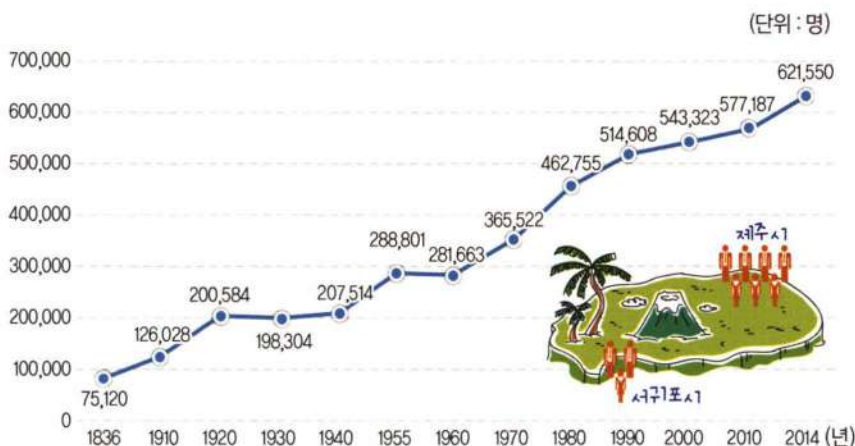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인구성장을 가파른 성장세

2013년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제주는 2014년 62만명을 넘겨 1836년 75,120명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전입인구는 32,835명으로 전출인구 21,723명을 제외한 순유입인구는 11,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인구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 서는데 반해, 제주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 성장률이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높다.

이렇게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제주 이민’, ‘제주얌이’ 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또한 휴직이나 퇴직 후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 ‘제주도 한달 살이’가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제주 이민’ 열풍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주민을 위해 귀농, 귀촌 신규 농업인을 위한 각종 영농정착 프로그램 등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2014년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2.79%
전국(0.56%)보다 5배 이상 높음

(단위: 명, 세대)

연도	인구				세대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A-B)
	한국인		외국인					
	남자	여자						
1836	75,120	35,953	39,167	...	15,760	...	...	...
1910	126,028	60,003	66,025	...	31,751	...	...	...
1920	200,584	97,999	102,585	...	42,531	...	...	...
1930	198,304	92,938	105,366	...	46,930	...	...	...
1940	207,514	96,486	111,028	...	50,247	...	...	...
1955	288,801	149,993	138,808	127	56,447	...	...	...
1960	281,663	131,371	150,292	...	64,352	...	...	...
1965	326,405	153,724	172,681	...	71,366	...	...	...
1970	365,522	175,193	190,329	...	82,992	...	...	...
1975	411,732	199,447	212,285	...	92,150	16,718	26,619	-9,901
1980	462,755	226,558	236,197	...	105,282	17,717	19,065	-1,348
1985	488,576	239,529	249,047	...	118,144	17,229	20,663	-3,434
1990	514,608	254,208	260,400	...	131,387	22,491	19,363	3,128
1995	519,394	256,182	262,654	558	157,314	18,335	19,161	-826
2000	543,323	269,126	273,242	955	177,600	20,881	23,239	-2,358
2005	559,747	277,862	279,707	2,178	204,635	22,159	22,964	-805
2010	577,187	285,582	285,673	5,932	224,713	21,717	21,280	437
2011	583,284	288,152	288,004	7,128	227,873	22,862	20,519	2,343
2012	592,449	292,213	291,500	8,736	232,141	25,221	20,345	4,876
2013	604,670	297,504	296,302	10,864	238,465	28,244	20,421	7,823
2014	621,550	304,656	302,690	14,204	246,516	32,835	21,723	1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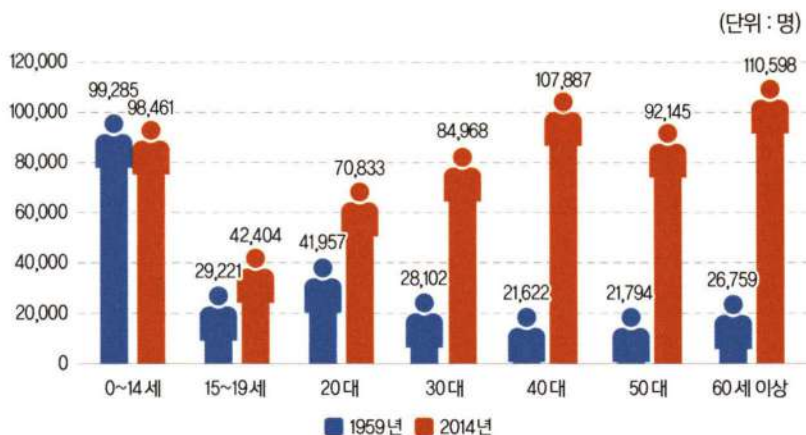
노령인구 40년 사이 4배 꺾증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주거,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률이 낮아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노령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제주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1975년 173,870명이었으나 2014년 98,46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975년 21,788명에서 2014년 82,411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제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기준 43,334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4년에는 13.6%(82,411명)까지 늘어나, 멀지않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맞춤형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

2014년 노령인구 비율 13.6%
전국(12.7%)보다 다소 높아

(단위 : 명, %)

연도	계	0~14세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
1959	268,740	99,285	29,221	41,957	28,102	21,622	21,794	26,759	-	-
1965	326,405	131,022	29,967	51,295	39,447	24,820	20,890	28,964	-	-
1975	411,486	173,870	41,746	56,435	50,758	35,678	22,140	9,071	21,788	5.3
1980	462,609	173,963	52,759	73,911	55,462	47,545	26,545	8,722	23,702	5.1
1985	488,300	154,138	60,075	94,710	59,227	50,005	33,480	11,227	25,438	5.2
1990	514,436	131,553	59,845	108,532	75,854	53,702	42,712	12,406	29,832	5.8
1995	512,091	118,162	45,474	101,313	86,218	63,328	45,785	21,979	29,832	5.8
2000	542,368	119,663	42,129	94,913	97,878	72,543	50,295	21,613	43,334	8.0
2005	557,569	118,728	33,626	80,977	99,993	89,267	56,045	23,138	55,795	10.0
2010	571,255	103,551	42,477	68,614	88,674	99,120	73,306	25,872	69,641	12.2
2014	607,346	98,461	42,404	70,883	84,968	107,887	92,145	28,187	82,411	13.6

주 1) 외국인 제외

2) 노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3) 1959, 1965년은 20대 이상의 인구가 10세 단위로 공표되어 노령인구비율 산출 불가



▲ 1950년대 현대식 신랑신부
▲ 1954년 제주시 용담동 결혼식 모습.



▲ 결혼식 날
옛 제주의 결혼식은 3~5일 동안 이뤄짐.
일반적인 잔치기간은 3일로, 결혼식 전날은 '가문잔치'라고 하여 돼지를 잡고 음식을 마련하여 친지와 하객들에게 대접하는날로, 돼지고기에 모자반을 넣고 끓인 '몸국'과 '가문반'을 나눠 먹었다.
결혼식 다음날은 '사돈잔치'로, 사돈들끼리 잔치를 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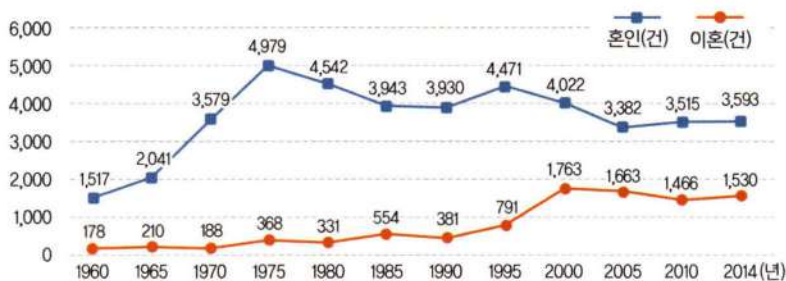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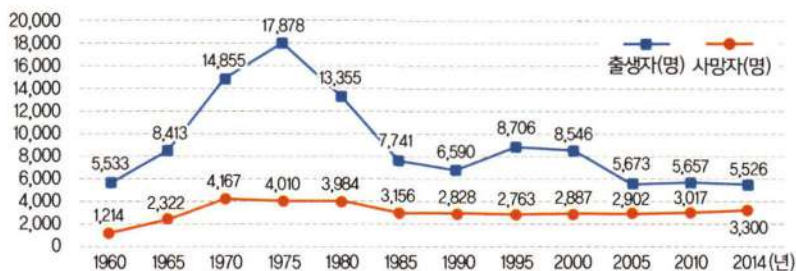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출생 감소

인구동태는 출생이나 사망에 의한 인구의 크기 변화 및 결혼, 이혼 등 속성에 따른 인구 집단의 변화 모양을 보여준다.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베이비 붐은 전쟁 또는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이 되었을 때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공통된 사회적 경향을 나타내고, 베이비부머는 그 당시에 출생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제주에서는 1차(1955~1963년), 2차(1968~1974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거치면서 출생자가 점차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8,5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5,526명이 태어나고, 3,300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197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3,5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출생자수가 많았던 1970년대 중반에는 5천쌍 가까이가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1960년 178건에서 점차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1,5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혼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인구동태

출생은 사망의 1.7배, 혼인은 이혼의 2.3배

(단위 : 명, 건)

연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1960	5,533	1,214	1,517	178
1965	8,413	2,322	2,041	210
1970	14,855	4,167	3,579	188
1975	17,878	4,010	4,979	368
1980	13,355	3,984	4,542	331
1985	7,741	3,156	3,943	554
1990	6,590	2,828	3,930	381
1995	8,706	2,763	4,471	791
2000	8,546	2,887	4,022	1,763
2005	5,673	2,902	3,382	1,663
2010	5,657	3,017	3,515	1,466
2014	5,526	3,300	3,593	1,530



세바퀴재미이야기

경제

Economy

- 016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아서 고용지표가 양호해요
- 018 **사업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아요
- 020 **지역내 총생산**
최근 50년간 1,300배가 넘는 GRDP 성장
- 022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 교육비가 많이 올랐어요!
- 024 **건축 허가**
건축경기는 활력이 넘쳐요
- 026 **수출입 실적**
무역규모 1990년 대비 16배 성장
- 028 **농가 및 농가인구**
전업농가는 줄고 겸업농가는 늘고 있어요
- 030 **식량작물 생산량**
식량 작물은 두류(콩, 팥등), 서류(감자, 고구마 등)가 가장 많아요
- 032 **채소류 생산량**
제주 대표 월동채소 무와 양배추
- 034 **감귤 생산**
감귤은 조생품종 비율이 가장 높아요
- 036 **가축사육**
가축 사육농가는 감소했지만, 사육규모는 크게 증가
- 038 **어가 및 어가인구**
어가 전업비율 줄고 어가인구 남녀 성비는 비슷
- 040 **어선 보유**
어선 중 85.6%가 10톤 미만 소형 어선
- 042 **수산물 어획고**
어류가 어획량의 80% 차지, 해조류는 갈수록 감소
- 044 **주요 어종별 생산 추이**
주요 어종 어획량 정체, 양식 넙치(광어)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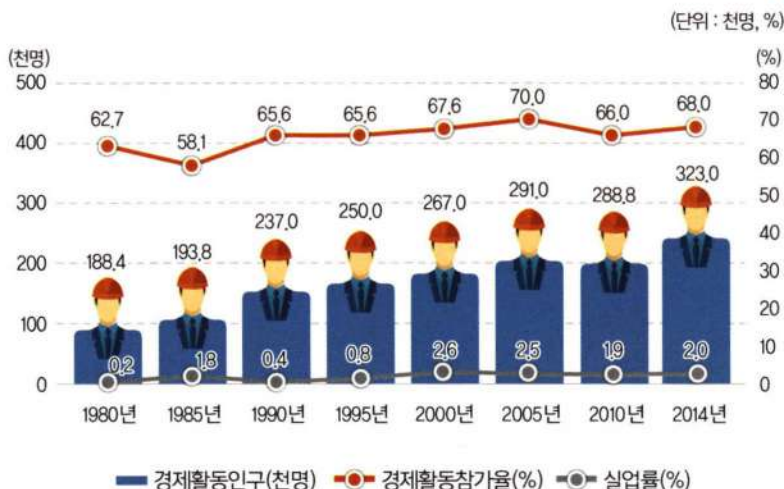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아서 고용지표가 양호해요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이면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2014년 기준 제주도의 15세 이상 인구 47만 5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2만3천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8.0%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실업률은 0.2%, 고용률은 62.6%이고, 2014년은 실업률 2.0%, 고용률 66.6%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실업률 3.5%, 고용률 60.2%)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은 1.5%p 낮고, 고용률은 6.4%p나 높아 가장 양호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매년 100개 이상 창출하고 있고,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취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 변동폭이 작고 고용률은 안정세

(단위: 천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980	300.6	188.4	188.0	0.4	112.2	62.7	0.2	62.6
1985	333.5	193.8	190.2	3.6	139.7	58.1	1.8	57.0
1990	362.0	237.0	236.0	1.0	125.0	65.6	0.4	65.0
1995	381.0	250.0	248.0	2.0	131.0	65.6	0.8	65.1
2000	395.0	267.0	261.0	7.0	127.0	67.6	2.6	66.1
2005	415.0	291.0	284.0	7.0	125.0	70.0	2.5	68.3
2010	437.5	288.8	283.3	5.5	148.8	66.0	1.9	64.8
2014	475.0	323.0	316.0	7.0	152.0	68.0	2.0	66.6

주 1) 2000년 이후 실업자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됨

2)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3)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4) 고용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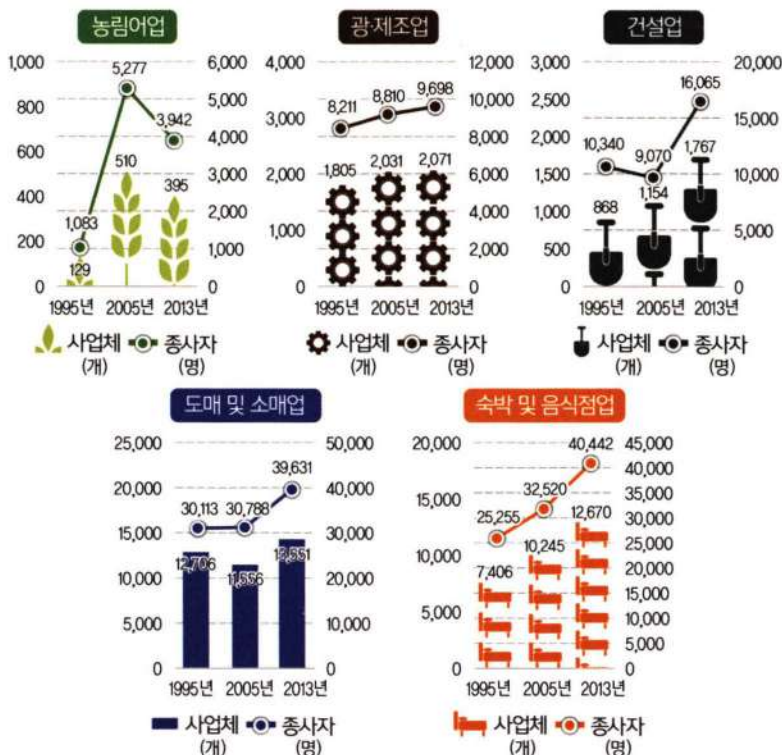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아요

1995년 제주도의 총 사업체수는 33,718개, 종사자는 141,581명이었다. 20여년이 지난 2013년에는 사업체가 51,727개, 종사자수는 226,734명으로 증가해 1995년 대비 각각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세부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은 도소매업이 26.2%로 가장 높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4.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광·제조업이 4.0%, 건설업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의 비중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사업체는 1995년 129개에서 2000년 567개 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제조업은 20여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3차 산업의 대표 업종인 도소매업은 90년대 12,00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13,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소상공인(도내 사업체 중 87.7%차지)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공공기관 보유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업체

농림어업 2005년 이후 감소
그 외 업종은 증가 추세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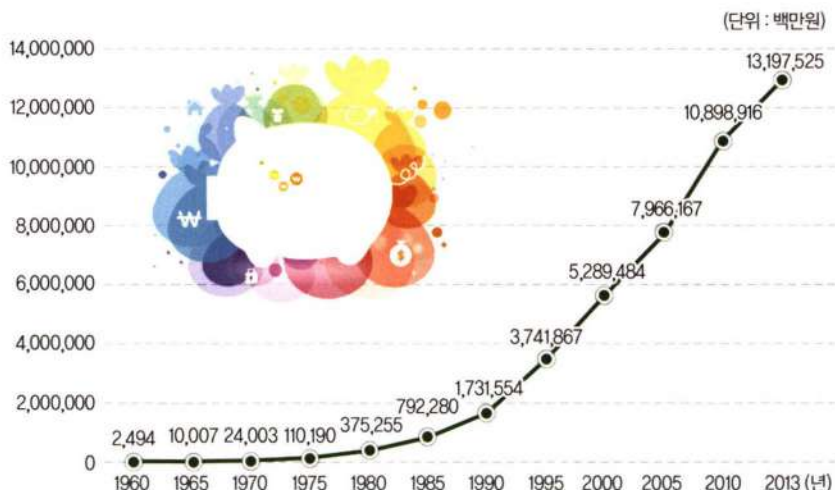
연도	합 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95	33,718	141,581	129	1,083	1,805	8,211	868	10,340	12,706	30,113	7,406	25,255	10,804	66,579
2000	38,847	154,005	567	8,351	1,697	7,584	841	9,286	11,795	29,057	9,377	28,704	14,570	71,023
2005	43,305	171,844	510	5,277	2,031	8,810	1,154	9,070	11,556	30,788	10,245	32,520	17,809	85,379
2010	45,831	202,616	389	3,915	1,871	8,849	1,302	16,619	11,969	33,259	10,785	33,019	19,515	106,955
2013	51,727	226,734	395	3,942	2,071	9,698	1,767	16,065	13,551	39,631	12,670	40,442	21,273	116,956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란 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단위의 종합경제지표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 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25억 규모였던 총생산액은 1990년도 들어 1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에 GRDP 1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2013년에는 총 13조2천억원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기타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이 82.2%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14.9%, 광·제조업이 2.8%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5.1%로 전국(2.8%)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제주도에서는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의 역동적 성장을 돕는 기업환경 조성,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 등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2013년 제주도 경제성장률 5.1%
전국(2.8%)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음

(단위 : 백만원, %)

연도	GRDP (당해년가액)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비중	광·제조업 비중	기타서비스업 비중
1960	2,494	...	...	...	...
1965	10,007	...	...	...	...
1970	24,003	...	...	...	...
1975	110,190	...	...	...	...
1980	375,255	...	...	...	...
1985	792,280	734,014	41.2	4.7	54.1
1990	1,731,554	1,683,060	34.0	4.9	61.1
1995	3,741,867	3,671,154	31.0	3.8	65.2
2000	5,289,484	4,830,261	21.0	3.4	75.6
2005	7,966,167	7,252,504	18.7	3.5	77.8
2010	10,898,916	10,168,054	18.4	4.3	77.3
2013	13,197,525	12,115,965	14.9	2.8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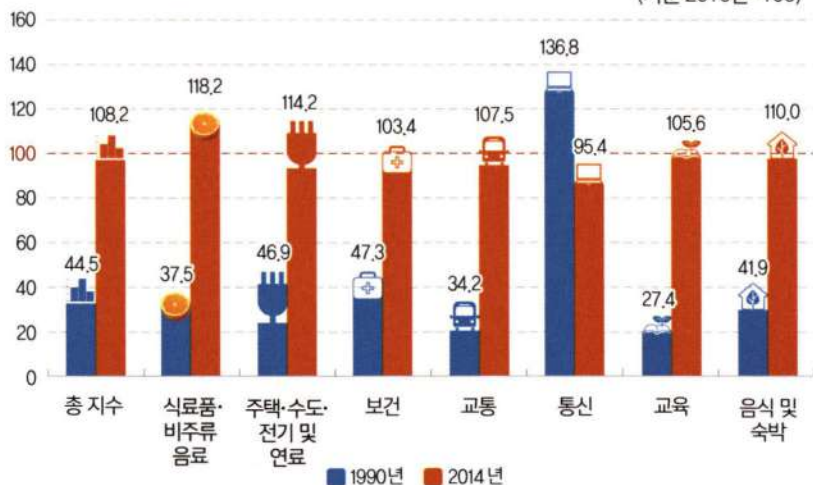
식료품, 교육비가 많이 올랐어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이다.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2014년 지수가 108.2라는 의미는 2010년 대비 물가가 8.2%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대비 2014년에 2배 이상 상승했고, 특히 식료품과 교통, 교육 분야 등은 3배 이상 증가하여 해당 분야의 높은 물가 상승을 증명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식료품 분야의 물가상승률이 타 분야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신비는 감소세에 있다.

식료품 분야의 물가상승률이 높기는 하지만,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전년대비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한데 반해,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1.1%의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제주도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물가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기준 2010년=100)



소비자물가지수

1990년 대비 식료품, 교육, 교통비가 많이 올랐고,
물가가 내려간 항목은 통신비

(기준 2010년=100)

연도	총 지수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보건	교통	통신	교육	음식 및 숙박
1990	44.5	37.5	46.9	47.3	34.2	136.8	27.4	41.9
1995	61.1	53.3	67.5	59.9	49.1	134.8	46.9	62.2
2000	74.4	62.8	80.8	75.6	71.2	126.3	65.4	74.9
2005	86.8	80.4	91.5	90.4	84.6	106.8	81.7	87.5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100.0
2013	107.0	117.1	112.7	102.6	108.8	95.6	104.4	107.3
2014	108.2	118.2	114.2	103.4	107.5	95.4	105.6	110.0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건축경기는 활력이 넘쳐요

1960년대 77개 동에 불과했던 건축허가량은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0년대 초반 잠시 움츠러들었으나 2010년 이후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활기를 되찾아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2010년과 비교해 건축허가 동수가 9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신축동 수가 120% 이상 증가하는 등 건축시장 경기가 활력을 띄고 있다. 건물 신축과 함께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제주도로 귀농, 귀촌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인구유입이 늘어나 전원 주택과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주거용 건물이 늘어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축경기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허가

2010년 이후 신축, 증·개축 등
건축허가 활발

(단위: 동, m²)

연도	총 건축허가량		신축		증축·개축 이전·대수선		용도변경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960	77	2,100	...	...	...	...	...	...
1970	1,250	81,676	...	...	...	...	...	...
1975	2,857	216,882	...	...	...	...	...	...
1980	2,959	427,178	2,113	348,994	773	72,547	73	5,637
1985	2,302	368,945	1,682	302,445	620	66,500	-	-
1990	3,821	1,092,490	2,641	956,108	1,178	136,309	2	73
1995	4,764	1,423,288	3,747	1,306,341	1,016	116,903	1	44
2000	3,366	1,256,092	2,430	1,113,872	929	139,881	7	2,339
2005	3,132	1,059,578	2,035	825,359	1,035	209,413	62	24,806
2010	4,164	1,534,420	2,429	1,201,435	1,315	248,544	420	84,441
2014	7,950	3,466,668	5,461	2,978,742	1,939	370,066	550	117,860



무역규모 1990년 대비 16배 성장

1990년에 26,307천불 규모로 집계되었던 제주도의 무역 규모는 20여 년이 흐른 2014년도에 16.4배 가량으로 성장한 431,949천불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수출은 약 1억불, 수입은 약 3억불로 수입이 수출의 3배 이상이다.

2013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 제주광어와 제주감귤이 수출되는 등 신선농수산물 수출이 활로를 찾았고, 도에서는 제주광어, 삼다수, 초콜릿, 백합, 찐뚝, 애니메이션, 건해삼 등 7개의 제주대표 수출상품을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수출 전문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주요 수출국 전시·홍보관이 도내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로서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수출입 실적

수입 1960년 12,665 → 2014년 325,534천불

수출 1960년 13,642 → 2014년 106,415천불

(단위 : 천불)

연도	총액 (A+B)	수출 (A)	수입 (B)	수출입 초과 (A-B)
1990	26,307	13,642	12,665	977
1995	76,303	36,217	40,086	-3,869
2000	92,346	39,826	52,520	-12,694
2005	204,261	63,282	140,979	-77,697
2010	303,642	98,042	205,600	-107,558
2014	431,949	106,415	325,534	-219,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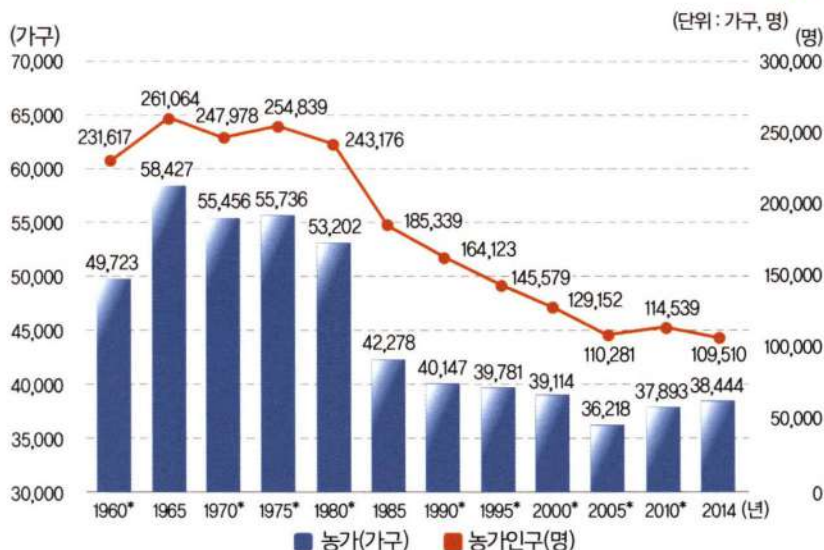
전업농가는 줄고 겸업농가는 늘고 있어요

제주도의 농가 규모는 2014년 기준 38,444가구로, 농사가 근간이었던 1960년 49,723가구 대비 1만 가구 이상이 감소했다. 제주의 농업위주 사회가 관광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가 및 농가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농가는 1970년대 5만가구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1975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농가 인구는 2014년 10만 9천명으로 1960년 23만명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농업 경영형태를 보면 과거 전업농가 위주였던 것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겸업농가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농가규모의 64% 이상이 겸업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계 위주였던 농가가 점차 산업형,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1차(생산), 2차(제조·가공), 3차(유통·판매) 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에서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안테나숍 운영,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등을 실시하여 제주형 6차산업화 조기 확산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 및 농가인구

2014년 추계 농가 38,444호 중
겸업농가 24,433호로 64%차지

(단위: 가구, 명)

연도	농가			농가인구		
		전업	겸업		남	여
1960*	49,723	45,099	4,624	231,617	...	...
1965	58,427	53,439	4,988	261,064	121,248	139,816
1970*	55,456	35,695	19,761	247,978	114,237	133,741
1975*	55,736	44,015	11,721	254,839	120,301	134,538
1980*	53,202	38,999	14,203	243,176	117,036	126,140
1985	42,278	27,888	14,390	185,339	89,749	95,590
1990*	40,147	19,339	20,808	164,123	80,192	83,931
1995*	39,781	17,506	22,275	145,579	70,994	74,585
2000*	39,114	18,288	20,826	129,152	63,839	65,313
2005*	36,218	16,385	19,833	110,281	54,899	55,382
2010*	37,893	13,412	24,481	114,539	56,984	57,555
2014	38,444	14,011	24,433	109,510	55,515	53,996

주1) *표시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임

2) 추계자료이므로 단단위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수눌음’ 고구마 심기
고구마는 1960년대 적극적인 증산정책으로 제주도 농가의 주 작물로 등장. 고구마 생산은 1975년~1979년 사이 최대 호황을 누리며, 1978년 33만6687t으로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으나 1980년대 감귤농업에 밀려 급격히 쇠퇴하여 1990년대 이후 감자와 마늘에 밀리면서 영백만 유지하고 있음
[*수눌음: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육지의 품앗이와 같다. 수눌음은 생산 공동체에서 행하는 관습으로 단순한 협업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돛거름’ 내기
제주에서 퇴비는 마소들이 겨우내 머무는 외양간 못지않게 제주에서 퇴비는 마소들이 겨우내 머무는 외양간 못지않게
‘돛통시’에서 나오는 ‘돛거름’ 비중이 만만치 않았다.
‘돛통시’에서 나오는 ‘돛거름’은 사람과 돼지 배설물, 돼지우리에서 생산되는 ‘돛거름’은 사람과 돼지 배설물, 각종 음식 찌꺼기, 고구마줄기와 같은 농작물의 잉여물 등이 뒤섞이는 곳이라서 ‘거름(퇴비) 생산에 안성맞춤이다. [*수눌음: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육지의 품앗이와 같다. 수눌음은 생산 공동체에서 행하는 관습으로 단순한 협업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식량 작물은 두류(콩, 팥 등), 서류(감자, 고구마 등)가 가장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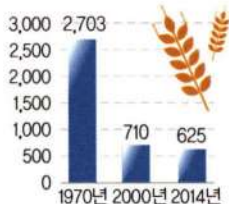
제주도는 화산지형으로 눈이나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토양의 특성상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적합하다. 1960년대 제주도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119,932톤으로, 감자 등의 밭작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리 등의 맥류 역시 전체 생산량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식량작물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준 식량작물 생산량은 24,257톤이며, 그 중 두류가 8,772톤으로 36.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60년대 62.6%에 달했던 서류는 생산량이 점차 줄어 2014년 6,142톤이 생산되었고 총 생산량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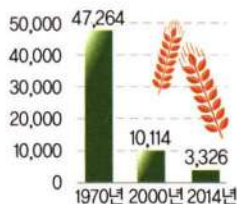
제주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품질만은 단연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제주 감자는 맛과 칩 가공성이 뛰어나며, 최근 품종 개량을 통해 ‘탐나’라는 이름으로 특허 및 품종보호출원을 했다. 또한 전국 생산량 1위인 제주 메밀의 경우 제주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품종을 선발·보급하는 등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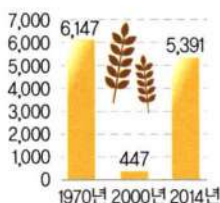
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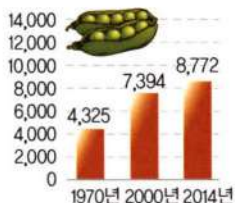
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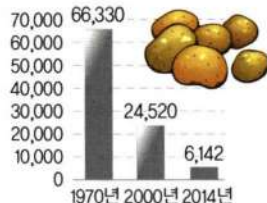
잡곡



두류



서류



식량작물 생산량

두류 생산량(36.2%) 비중 가장 높고,
서류 생산량 25.3% 차지

(단위 : 톤)

연도	합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1960	119,932	2,677	29,246	11,392	1,523	75,094
1965	194,572	6,530	62,836	8,249	1,904	115,054
1970	126,768	2,703	47,264	6,147	4,325	66,330
1975	160,363	5,590	37,335	5,912	9,956	101,571
1980	128,144	4,126	40,469	1,794	7,627	74,128
1985	93,241	3,699	34,347	1,718	7,984	45,493
1990	87,783	2,488	26,100	2,203	18,173	38,819
1995	78,979	553	24,724	1,374	16,282	36,046
2000	43,185	710	10,114	447	7,394	24,520
2005	50,876	2,863	8,775	2,409	9,417	27,412
2010	76,045	2,895	6,571	3,115	11,473	51,991
2014	24,257	625	3,326	5,391	8,772	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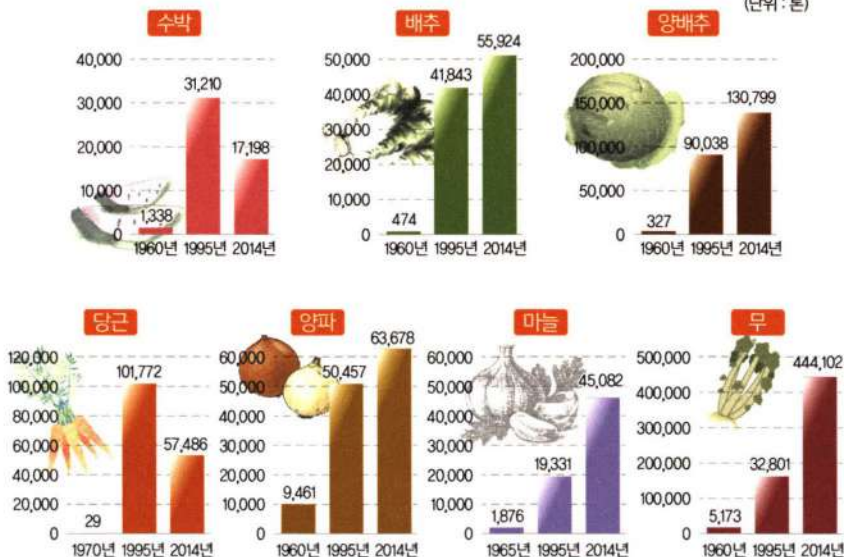
제주 대표 월동채소 무와 양배추

따뜻한 기후로 인해 다모작이 가능한 제주는 전남과 함께 겨울철 채소를 생산하는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등은 브랜드 가치 또한 매우 높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채소류 생산량 중 배추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에는 배추 생산량이 줄고, 대신 양배추, 당근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파와 마늘 등의 생산량이 늘어났다. 2014년 기준 채소류 생산량은 무가 444,102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됐고, 다음으로 양배추, 양파, 당근, 배추, 마늘 순이다.

최근 들어 방울다다기양배추, 샤보이양배추 등 보완품종이 도입되었고, 당근은 유색 미니당근, 주스용 당근 등으로 그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양파의 경우는 감자와 함께 Golden Seed 프로젝트(종자강국 도약 및 품종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기획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종자 개발 R&D)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산 채소류의 다양한 품종과 고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단위: 톤)



채소류 생산량

무 생산량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
양배추, 마늘 증가 추세

(단위: 톤)

연도	수박	배추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무
1960	1,338	474	327	-	9,461	-	5,173
1965	1,909	7,159	2,005	-	5,840	1,876	5,296
1970	1,416	8,461	1,332	29	2,321	1,849	5,833
1975	3,229	10,439	3,216	131	5,603	1,939	14,094
1980	2,585	27,264	8,842	11,788	8,328	6,032	20,038
1985	18,494	69,260	48,482	29,953	34,640	19,894	9,713
1990	28,527	79,553	64,208	43,971	11,231	11,904	22,376
1995	31,210	41,843	90,038	101,772	50,457	19,331	32,801
2000	23,838	40,737	114,577	107,383	44,099	50,429	48,552
2005	10,281	40,306	116,420	90,986	46,785	58,983	185,846
2010	4,082	31,977	102,634	66,186	60,889	39,239	353,519
2014	17,198	55,924	130,799	57,486	63,678	45,082	444,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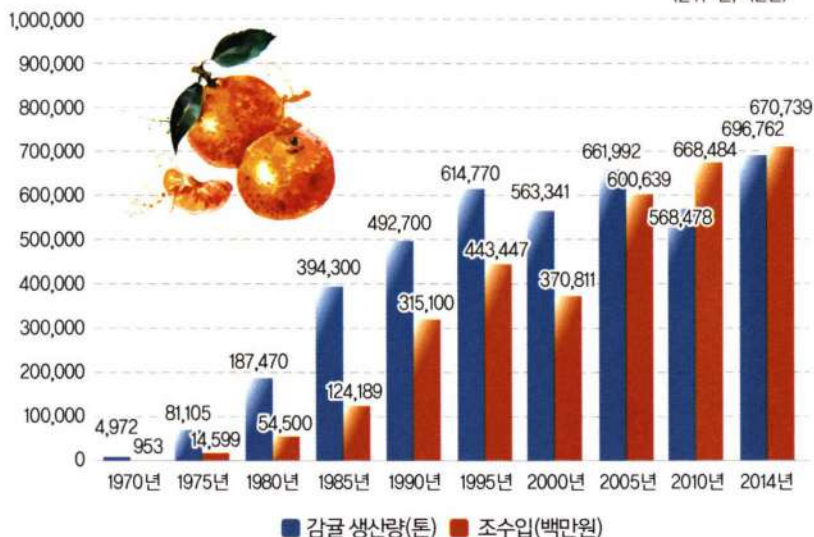


감귤은 2014년 생산량 69만톤, 조수입 6천7백억원을 넘어서면서 반세기 넘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과일로 그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제주도의 주요 수입원임과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감귤 품종은 중만생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후 당도와 채도면에서 우수한 조생품종이 대세로 자리잡았고, 현재는 감귤생산량의 90% 가까이가 조생품종이다. 또한 최근 감귤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만감류 생산량이 전체의 9.4%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에서는 제주감귤 명품화를 위해 3대혁신(의식혁신, 품질혁신, 유통혁신) 사항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감귤생산 실명제, 국제규격에 따른 감귤 품질 규격 조정 (11단계 → 5단계), 강제착색·비상품 경매 격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 톤, 백만원)



감귤 생산

2014년 감귤 생산 조수입 6천7백억원 이상
제주 대표 과실 입증

(단위 : ha, 톤, 백만원)

연도	식부면적	감귤 생산량	품종별 생산량			조수입
			온주		만감류	
			조생	중만생		
1970	5,002	4,972	...	...	...	953
1975	10,930	81,105	28,792	50,281	2,032	14,599
1980	14,094	187,470	60,060	126,140	1,270	54,500
1985	16,969	394,300	136,800	253,600	3,900	124,189
1990	19,414	492,700	256,800	231,000	4,900	315,100
1995	21,605	614,770	450,130	158,460	6,180	443,447
2000	25,796	563,341	503,504	49,220	10,617	370,811
2005	21,430	661,992	618,614	19,082	24,296	600,639
2010	20,747	568,478	510,914	14,738	42,826	668,484
2014	20,555	696,762	615,363	15,599	65,800	67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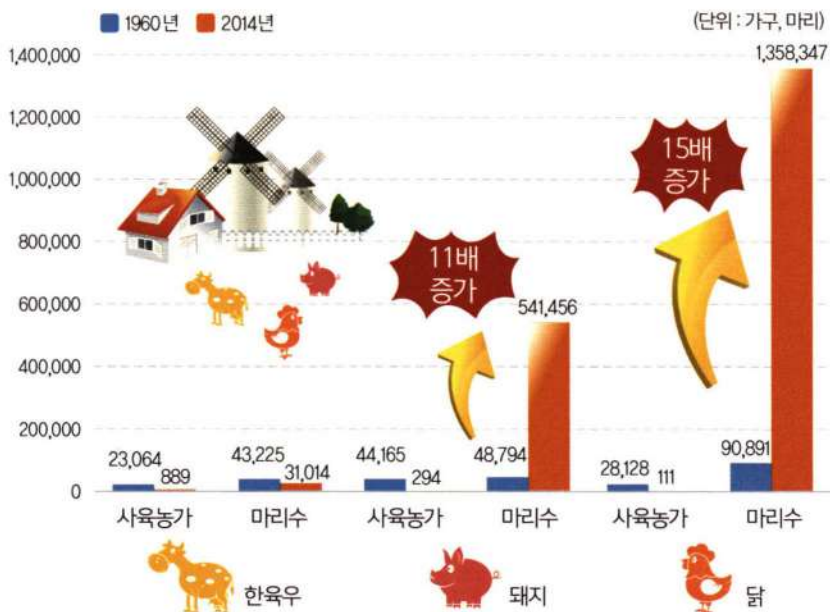


가축 사육농가는 감소했지만, 사육규모는 크게 증가

1960년대 제주에서는 소 43,225마리, 돼지 48,794마리, 닭 90,891마리를 사육했다. 당시의 마리수 기준 사육규모는 닭이 가장 컸고, 농가수 기준으로는 돼지가 가장 많았다.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닭(3.23마리) > 소(1.87마리) > 돼지(1.10마리) 순이었고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4년에 와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돼지와 닭의 사육 마리수는 1960년 대비 11배, 15배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닭(12,237마리) > 돼지(1,841마리) > 소(35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사육 형태가 대량사육으로 변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공장식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닭의 경우 농가당 사육 마리수의 증가(약 3,800배)가 특히 두드러진다.

제주는 2001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국제공인을 받은 이후 전국적으로 퍼진 4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에도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등 가축전염병에 있어 안전지대로 꼽히고 있다.



가축 사육

1960년 대비 2014년
가축 사육규모 돼지 11배, 닭 15배 증가

(단위: 가구,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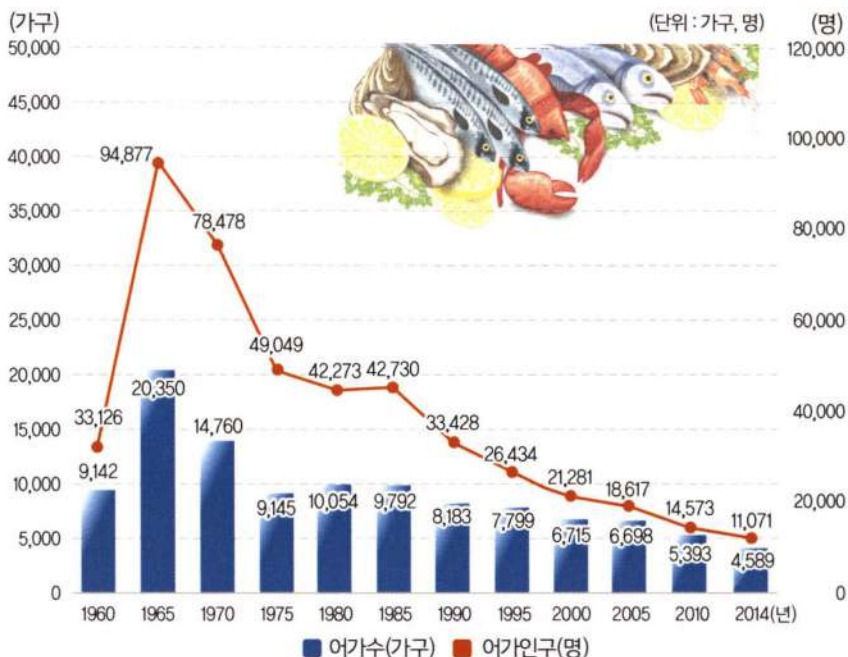
연도	한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	마리수	사육농가	마리수	사육농가	마리수
1960	23,064	43,225	44,165	48,794	28,128	90,891
1965	35,065	76,585	52,351	65,812	33,548	120,546
1970	22,940	42,369	...	54,700	...	167,821
1975	21,479	44,535	42,008	59,312	1,532	146,171
1980	...	41,508	...	48,822	...	302,140
1985	15,034	57,173	11,068	72,205	1,232	499,833
1990	8,222	38,030	1,572	109,192	212	804,015
1995	3,036	32,117	381	239,808	395	1,118,887
2000	1,145	21,732	290	335,645	232	1,300,049
2005	1,031	22,556	333	400,569	131	1,221,349
2010	1,043	30,487	312	502,032	127	1,344,322
2014	889	31,014	294	541,465	111	1,358,347



제주어가는 1965년 2만가구에서 2014년 4,589가구로 집계되었다. 어가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어가인구는 1965년도의 10% 수준인 11,07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960년도에는 여성이 70%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업형태가 생계형에서 대량화, 양식화 등 산업형으로 변화해가면서 남성 어가인구가 점점 늘어나 현재는 남녀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주 어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녀’인데, 제주의 여성들은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하는 운명에 순종하며 7~8세 때부터 해엄치는 연습을 하고, 12~13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두령박을 받아 얇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해엄쳐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 15~16세에는 비로소 바다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해녀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까지 2만여명에 이르렀던 해녀는 2014년 4,41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강인한 개척정신 등 생업을 위해 희생한 제주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제주도는 더 큰 해양시대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제주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고부가가치화, 대중국 수산물 수출 프로젝트 추진,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가 및 어가인구

1960년 중반 어가 급증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단위 : 가구, 명)

연도	어가		어가인구			
		전업	겸업		남	여
1960	9,142	1,687	7,455	33,126	9,730	23,396
1965	20,350	...	...	94,877	38,241	56,636
1970	14,760	518	14,242	78,478	36,988	41,490
1975	9,145	...	...	49,049	24,580	24,469
1980	10,054	...	...	42,273	20,619	21,654
1985	9,792	2,028	7,764	42,730	20,385	22,345
1990	8,183	1,323	6,860	33,428	16,186	17,242
1995	7,799	1,548	6,251	26,434	12,805	13,629
2000	6,715	1,791	4,924	21,281	10,424	10,857
2005	6,698	1,465	5,233	18,617	9,027	9,590
2010	5,393	1,104	4,289	14,573	7,087	7,486
2014	4,589	453	4,136	11,071	5,006	6,065

주) 해수면어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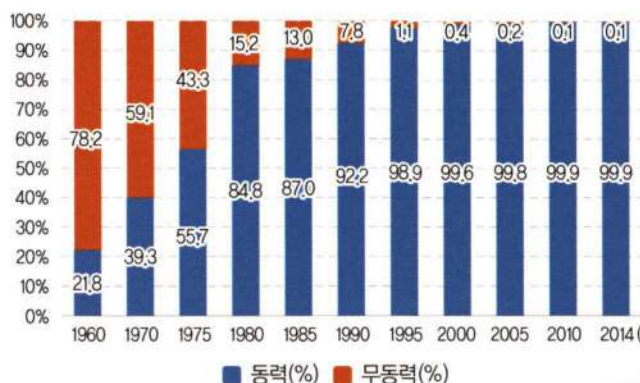


어선 중 85.6%가 10톤 미만 소형 어선

1960년대까지는 어선의 80% 가량이 무동력어선이었으나, 어업의 형태가 생계형에서 산업형으로 변화하면서 5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제주에 무동력 어선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1톤 미만의 소형 생계형 어선은 1970년대까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2014년 1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1톤 이상~5톤 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들이 어획량 감소와 고유가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며 전업을 희망하고, 선원 인력난과 어선어업인 고령화로 인해 어선 감척이 불가피해져 1999년부터 어업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 보유

현재 무동력어선은 거의 없음

(단위 : 척)

연도	계		1톤 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톤 이상
	동력	무동력				
1960	803	175	628	...	...	...
1970	1,265	497	747	716	273	144
1975	954	531	413	476	470	6
1980	1,338	1,134	204	199	833	145
1985	1,777	1,546	231	242	1,206	151
1990	2,055	1,894	161	...	1,550	233
1995	2,325	2,299	26	...	1,551	520
2000	3,303	3,289	14	637	1,657	712
2005	3,239	3,232	7	499	1,548	888
2010	2,068	2,066	2	281	912	578
2014	1,937	1,936	1	182	903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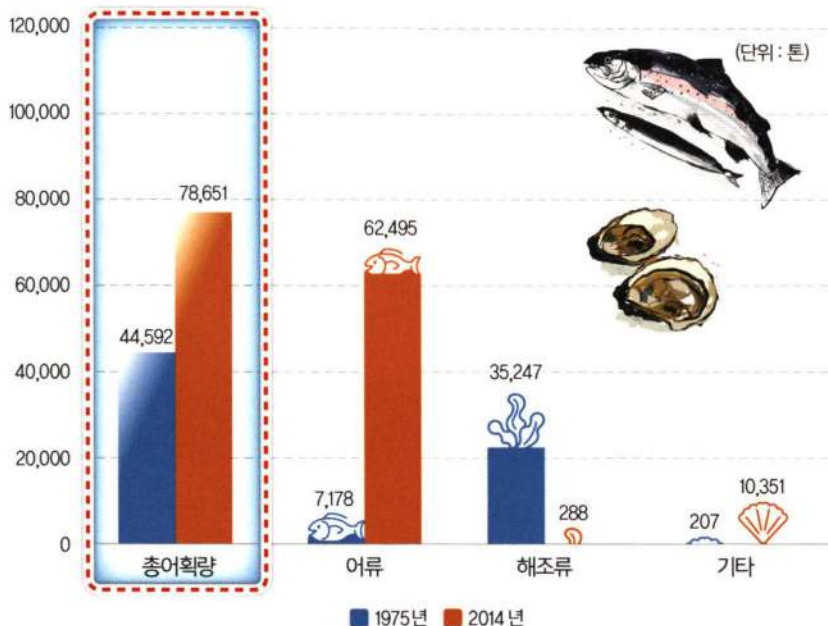
어류가 어획량의 80% 차지, 해조류는 갈수록 감소

어선어업은 어로기술의 발달, 어선의 현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갑각류, 연체동물 등은 어획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요한 수산자원인 해조류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눈에 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 연안어장의 생태 변화가 주 원인이며, 90년대 이후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제주도 연안해역의 환경변화와 갯녹음(백화현상) 발생 등으로 인해 감태, 모자반, 톳, 우뚝가사리 등 제주의 대표 해조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해조류 자원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지역내 해조류 회복기술의 개발, 해조류의 양식이나 이식 등의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4월에 정원 101명, 어업지도선 6척 규모의 '제주 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을 단속하여 제주연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어업지도선 컨트롤타워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 인력 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조성, 어선안전조업지도 등 수산시책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지도 단속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수산물 어획고

총 어획량 1975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1975년은 해조류, 2014년은 어류의 비중이 가장 높음

(단위: 톤)

연도	총어획량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해조류	기타
1975	44,592	7,178	...	...	1,960	35,247	207
1980	39,564	17,332	135	375	2,254	19,336	643
1985	44,190	14,460	551	6,176	...	21,790	1,213
1990	36,688	19,448	1,311	3,620	...	11,041	1,268
1995	57,887	38,135	898	4,690	...	12,909	4,429
2000	47,728	37,034	608	3,871	...	6,027	2,734
2005	86,332	75,733	825	2,091	2,461	4,680	3,003
2010	80,742	67,081	1,157	3,592	2,684	5,155	1,073
2014	78,651	62,495	824	2,722	1,971	288	10,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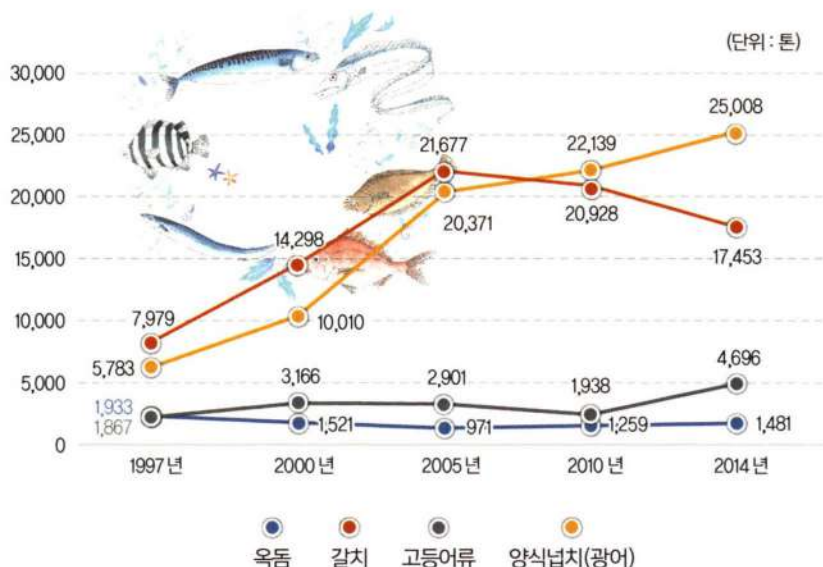


주요 어종 어획량 정체, 양식 납치(광어) 증가세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 채낚기와 연승으로 어획하는 갈치는 17,453톤, 육상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양식광어가 25,008톤, 제주근해에서 유자망으로 어획하는 참조기가 7,974톤, 연승과 유자망으로 어획하는 옥돔은 1,481톤 등으로 갈치, 양식광어, 참조기, 옥돔 등이 제주도의 주요생산 어종이다.

옥돔과 은갈치는 그물어업 방식이 아닌 낚시어업 방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에 한계가 있지만, 전국 어획량의 90% 이상이 제주 주변해역에서 잡히는 만큼 제주만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생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옥돔과 은갈치는 MSC 인증(Marine Stewardship Council : 자연산 어획물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유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수산물에 대해 국제비영리단체인 해양 수산관리협의회에서 부여하는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어업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옥돔, 은갈치와 함께 최근 고등어가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제주해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획량이 5천톤 가까이 늘어났다.



주요 어종별 생산추이

양식넙치(광어)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갈치는 2005년 이후 감소추세

(단위: 톤)

연도	오돔	참조기	갈치	고등어류	양식넙치(광어)
1997	1,933	2,187	7,979	1,867	5,783
2000	1,521	2,698	14,298	3,166	10,010
2005	971	7,683	21,677	2,901	20,371
2010	1,259	7,393	20,928	1,938	22,139
2014	1,481	7,974	17,453	4,696	25,008

용어 설명

- 채낚기 : 긴 줄에 낚시를 1개 또는 여러 개 달아 대상물을 채어 낚는 방법
- 연승 :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대상물을 낚는 방법
- 유자망 : 그물을 수면에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보내면서 대상물을 그물코에 낚히게 하여 잡는 방법



네번째이야기
관광
Sightseeing

- 048** **관광객**
하늘 길을 이용한 제주방문, 개인 여행이 대세
- 050** **관광지**
자연경관이 최고의 관광자원!
- 052** **박물관**
박물관에 가면 제주가 보여요
- 054** **문화공간**
문화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 056** **해수욕장 이용객**
해수욕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 058** **관광사업체**
2000년 이후 관광사업체 가파른 상승

2014년 한 해
제주 방문객

12,273,917 명



하늘 길을 이용한 제주방문, 개인 여행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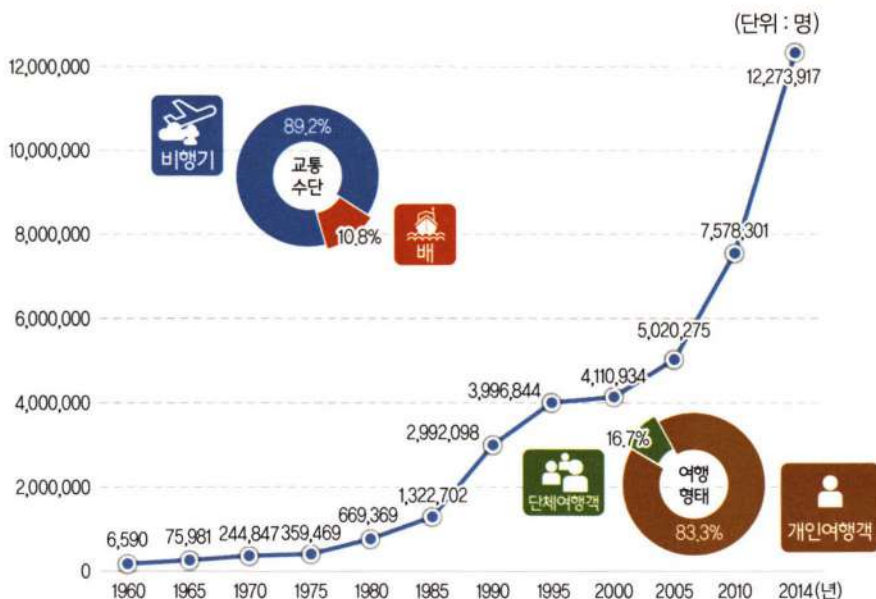
1960년 한 해 동안 제주를 방문한 사람은 6,590명에 불과했으나 5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관광객이 1천2백만명을 돌파했고, 2010년 이후로는 해마다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관광도시 제주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관광객 중 내국인의 비율은 1960년 97.4%에서 2014년 72.9%로 감소해 내외국인 관광객 비율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류의 붐을 타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다. 2014년 한 해 동안 3백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 했다.

교통수단별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선박편이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저비용 항공사 등 국내선 항공편 공급 좌석이 늘어나면서 대부분(89%)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여행형태별로는 단체 관광객 보다는 개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제주도는 해외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동남아 시장에서는 매체광고 및 홍보와 박람회 참가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뉴델리와 뭌바이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이다.



관광객

2010년 이후 매년 관광객 100만명 이상 증가
2014년 관광객 중 27%가 외국인

(단위 : 명)

연도	합계	내국인	외국인	교통수단별		여행형태별	
				항공편	선박편	단체별	개인별
1960	6,590	6,418	172	...	...	...	...
1965	75,981	74,407	1,574	...	...	...	...
1970	244,847	238,354	6,493	80,527	164,320	89,045	155,802
1975	359,469	331,472	27,997	140,582	218,887	116,810	242,659
1980	669,369	648,821	20,548	390,184	279,185	250,661	418,708
1985	1,322,702	1,249,026	73,676	967,580	355,122	395,025	927,677
1990	2,992,098	2,757,023	235,075	2,524,882	467,214	783,191	2,208,905
1995	3,996,844	3,754,960	241,884	3,645,494	351,350	1,123,929	2,872,915
2000	4,110,934	3,822,509	288,425	3,828,627	282,307	938,828	3,172,106
2005	5,020,275	4,641,552	378,723	4,607,468	412,807	1,692,142	3,330,133
2010	7,578,301	6,801,301	777,000	6,647,958	930,343	1,846,054	5,732,247
2011	8,740,976	7,695,339	1,045,637	7,613,683	1,127,293	1,457,033	7,283,943
2012	9,691,703	8,010,304	1,681,399	8,561,657	1,130,046	1,409,666	8,282,037
2013	10,851,265	8,517,417	2,333,848	9,401,801	1,449,464	1,248,723	9,602,542
2014	12,273,917	8,945,601	3,328,316	10,950,678	1,323,239	2,052,394	10,221,523



자연경관이 최고의 관광자원!

2005년 29개에 불과했던 도내 관광지 수는 2014년 165개까지 증가하여 6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10만여평의 야자수군락과 송림이 울창한 한림공원, 용암동굴인 만장굴,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인 정방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 만들어진 연못 '천지소'가 있는 천지연 폭포, 바다위의 성 성산일출봉 등이 있다.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천지연폭포의 인기 또한 높아졌고, 특히 성산일출봉은 2013년 방문객이 3백만명을 넘어서 제주도 1위의 관광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영역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별 관광객수

(단위: 천명)



관광지

2005년 29개소 → 2014년 165개소
성산일출봉이 가장 인기

(단위: 개, 천명)

연도	관광지	관광지별 관광객 수					
		한라산	한림공원	만장굴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1980	...	...	208	339	320	378	...
1985	...	...	587	681	561	704	560
1990	...	362	1,325	1,174	859	1,627	1,313
1995	...	538	1,494	921	840	1,797	1,311
2000	...	545	1,172	580	590	1,517	767
2005	29	734	...	419	487	1,534	1,226
2010	132	1,142	988	687	556	1,639	1,970
2014	165	1,166	696	675	738	1,706	3,405

2014^년

박물관 6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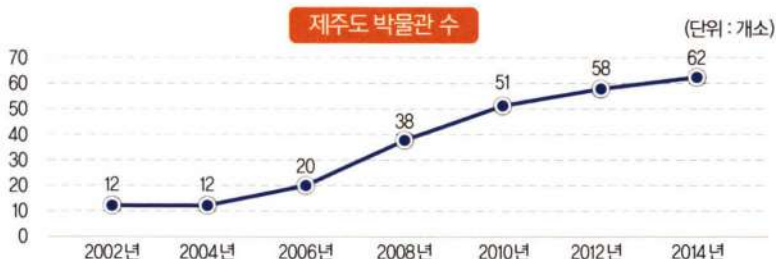


박물관에 가면 제주가 보여요

제주도는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등 지역특성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박물관이 많다. 역사와 문화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과 민속자연사 박물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대표 박물관이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 4·3평화기념관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다.

2014년 기준 집계된 박물관은 60여 곳이며, 주요 박물관 6곳의 연(年)관람인원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106만명에서 2014년 172만명으로 늘어났다. 포함되지 않은 박물관까지 합치면 박물관 관람인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제주대표 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02년 이후 해마다 관람객 8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은 2002년 16만명에서 2014년 35만명으로 관람객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박물관

2002년 대비 박물관 수 5배 증가

(단위: 개소, 명)

연도	박물관 수	연 관람인원						
		합계	국립제주 박물관	제주교육 박물관	민속자연 사박물관	제주돌 문화공원	해녀 박물관	제주4·3 평화기념관
2002	12	1,061,917	159,663	64,017	838,237	-	-	-
2004	12	1,220,660	278,443	31,174	869,077	-	-	41,966
2006	20	1,430,218	301,899	34,529	837,649	147,401	-	108,740
2008	38	1,837,258	254,366	54,559	998,909	146,298	207,326	175,800
2010	51	2,047,245	394,280	46,278	984,408	208,999	211,254	202,026
2012	58	2,194,311	461,308	44,285	893,955	363,931	218,882	211,950
2014	62	1,723,137	345,600	44,873	796,707	172,390	163,802	199,765

주) 합계는 주요 박물관의 관람인원 합계이므로 제주도 전체 박물관의 관람인원보다 적음



▲ 제주해변공연장개관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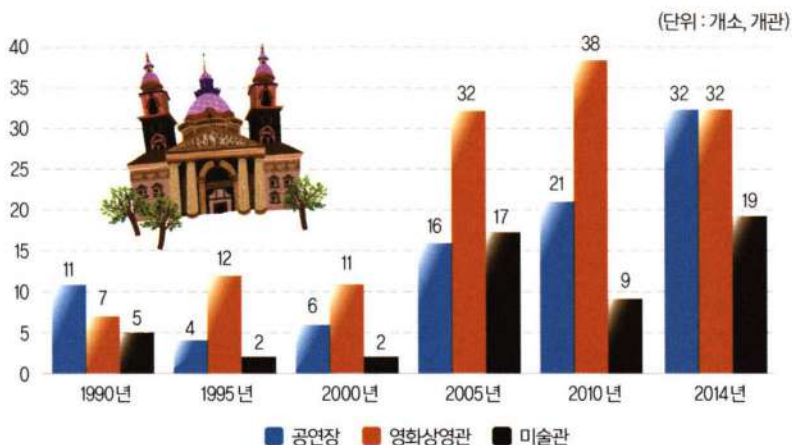
제주시 탐동 제주해변공연장은 1994년 개관되면서 제주도내에서도 야외에서 음악회를 접할 수 있게 됨. 사진은 당시 개관기념식 모습. 탐동 바닷가에는 이를 축하하는 배들이 떠 있다. 특히 1995년부터는 이 해변공연장과 문예회관 등지에서 국제관악제가 상설 개최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문화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공연장은 32개소, 영화상영관(스크린 수 기준)은 32개관, 미술관이 19개소 등으로 집계되었다. 1990년도에는 스크린 수가 7관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스크린 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연장 역시 1990년 대비 3배 정도로 늘어나, 제주를 명실공히 문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 공연장 상주단체들은 문화행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연장을 축재장으로 선정해,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흔들들영, 열쑈)을 무료로 개최하여 선보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 건립 또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전통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고,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등 제주 대표 문화축제를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육성시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문화공간

공연장 11 → 32개소 / 영화상영관 7 → 32개관
미술관 5 → 19개소

(단위 : 개소, 개관)

연도	공연장	영화상영관 (스크린 수)	미술관
1990	11	7	5
1995	4	12	2
2000	6	11	2
2005	16	32	17
2010	21	38	9
2014	32	32	19

2013년
3,366,026명
입장



해수욕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해수욕장 이용객은 1980년 11만명에서 2013년에는 30배가 넘는 33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야간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한여름밤 해변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야간 개장을 시작하면서 이용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기준 주요 해수욕장 중에서 함덕서우봉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약 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재와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각각 58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해변에서는 매년 여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삼양 해변에서는 올해 14회째를 맞은 삼양검은모래 해변축제, 제주해변공영장에서는 1994년 최초 개최되었던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이호테우해변에서는 고기잡이와 테우체험이 가능한 제주이호테우축제, 표선해비치해변에서는 하얀모래축제가 20년간 개최되어 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바다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

1980년 대비 이용객 약 30배 증가
함덕 서우봉해변이 가장 인기

(단위: 명)

연도	해수욕장 이용객	이호테우	협재	함덕 서우봉	중문색달	표선 해변치	기타
1980	116,603	8,540	9,280	48,865	-	1,740	48,178
1985	264,428	28,680	51,520	90,795	24,205	3,120	66,108
1990	519,159	53,710	105,140	180,380	44,440	12,950	122,539
1995	342,000	47,000	58,000	73,000	59,000	22,000	83,000
2000	420,400	45,700	95,865	52,645	120,778	27,490	77,922
2005	813,200	91,500	156,833	82,960	264,357	77,000	140,550
2010	2,384,210	275,800	372,950	477,800	430,010	232,000	595,650
2013	3,366,026	451,410	579,059	648,391	582,800	284,200	8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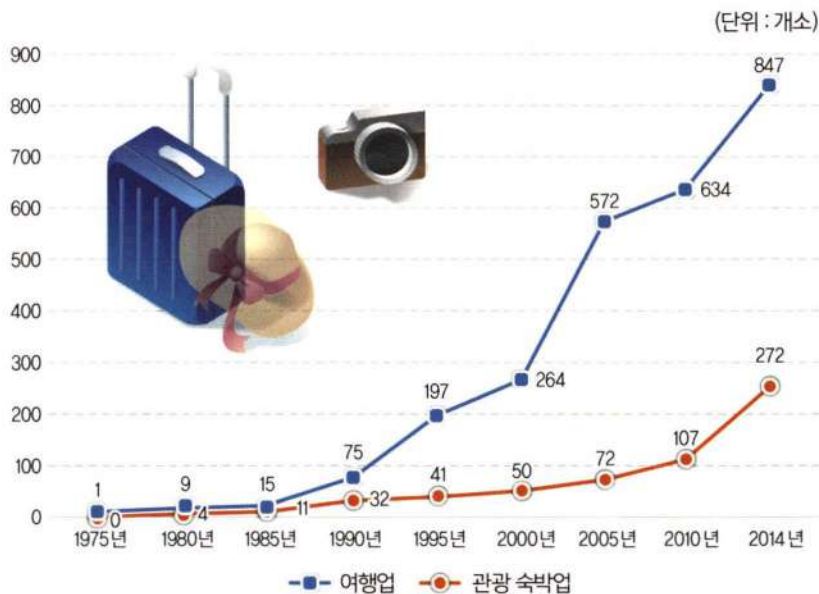


2000년 이후 관광사업체 가파른 상승

제주의 관광사업체는 국내외 관광객수가 급증한 2000년대 이후부터 5년 사이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그 규모가 1,400개를 돌파했고, 여행업이 847개, 관광숙박업이 272개, 관광객이용시설업이 101개 등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여행업체는 2005년 이후 시점별로 150개 이상씩 늘어나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행업체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영세업체나 무등록, 무자격 업체도 생겨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민간주도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여행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관광숙박시설 수급 분석을 통해 적정량을 공급하여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신화·역사 등과 관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과 차별화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여행업은 2000년과 2005년 사이 두 배 증가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1975	1	1	-	-	-	-	-	-
1980	37	9	4	24	-	-	-	-
1985	34	15	11	8	-	-	-	-
1990	124	75	32	17	-	-	-	-
1995	262	197	41	24	-	-	-	-
2000	333	264	50	19	1	-	-	22
2005	718	572	72	28	5	8	9	24
2010	887	634	107	59	15	8	13	51
2014	1,467	847	272	101	30	8	23	186



다섯번째 이야기

주거환경

Residential
Environment

- 062 주택현황 및 보급률**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빠르게 증가해요
- 064 주택 점유형태**
월세 비율 갈수록 높아져
- 066 상수도**
급수 어려움 극복, 상수도 보급률 100%
- 068 전력사용**
전력사용 50년새 1천배 증가
- 070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 072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 추세
- 074 전문대 및 대학교**
대학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076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 078 체육시설**
1990년 이후 체육시설 3.7배 이상 증가
- 080 도로**
사통팔달, 한시간이면 어디든지
- 082 자동차 및 주차장**
자동차 보유비율 전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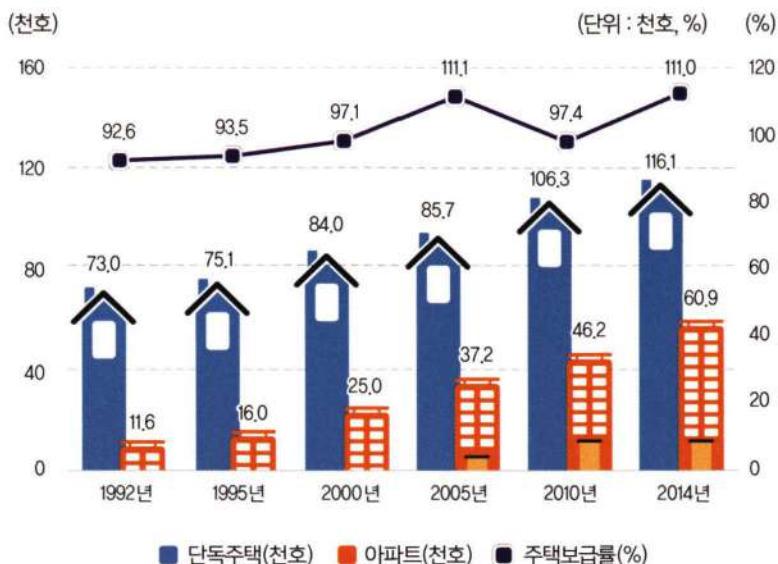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빠르게 증가해요

2014년 기준 제주도의 가구수는 19만4천 가구, 주택보급수는 21만6천호로, 주택보급률이 111.0%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2005년도에 111.1%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 다소 낮아지고 2014년 111.0%로 회복했다. 가구수는 1992년 10만8천가구에서 2014년 19만4천가수로 증가했고 주택수는 1992년 9만9천호에서 21만6천호로 가구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형태별 비중은 2014년 기준 단독주택이 53.8%로 가장 높고, 아파트는 28.2%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주택보급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 및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현황 및 보급률

2011년 이후 주택 보급률 100% 이상 유지

(단위: 천가구, 천호, %)

연도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1992	108.0	99.0	73.0	-	11.6	5.8	5.1	92.6
1995	117.9	110.3	75.1	-	16.0	9.0	5.6	93.5
2000	133.3	129.4	84.0	0.5	25.0	10.9	9.5	97.1
2005	138.1	153.4	85.7	10.9	37.2	12.2	18.3	111.1
2010	187.3	182.5	106.3	23.4	46.2	11.1	18.8	97.4
2014	194.4	215.8	116.1	45.7	60.9	15.0	23.8	111.0



월세 비율 갈수록 높아져

2014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11.0%로, 가구수보다 공급 주택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늘어나는 이주 인구와 핵가족화로 인해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56.5% 수준이다. 전국과 비교해서 제주도의 자가비율은 전국 평균(54.2%)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비율 중 사글세 비율이 17.3%로 가장 높고, 전세 비율은 5.8%, 월세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월세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세 비율을 앞질렀다.



주택 점유형태

1985년 이후 자가비율 55% 유지

(단위 : 가구, %)

연도	계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자가비율		보증부	무보증		
1975	70,094	61,642	87.9	2,601	-	-	2,689	3,162
1980	77,095	65,753	85.3	5,987	-	-	3,521	1,834
1985	118,144	67,913	57.5	7,222	-	-	32,651	10,358
1990	131,367	71,634	54.5	10,517	2,808	-	36,376	10,032
1995	146,426	84,813	57.9	15,460	3,650	1,877	28,809	11,817
2000	157,563	87,333	55.4	15,194	7,655	2,291	30,895	14,193
2005	179,199	98,126	54.8	12,000	16,222	3,713	31,893	17,245
2010	187,323	105,818	56.5	10,863	19,261	4,174	32,430	14,777



▲ 물을 길어 나르는 물동이.
제주도 바람이 세고 돌이 많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를 경우 돌에 채가나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어 등에 지고 운반하였다.



▲ 여승생 저수지 공사

2014년
상수도 보급률 100% 전국 1위
1일 1인당 급수량 653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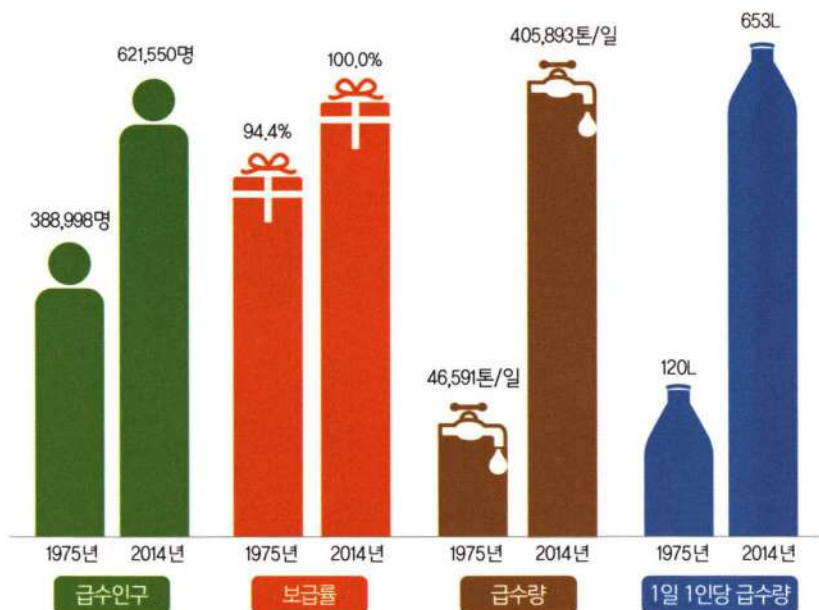
급수 어려움 극복, 상수도 보급률 100%

제주도는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지만 물이 잘 스며드는 토질의 특성 상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57년 9월 제주도 최초로 근대식 상수도인 금산수원을 준공하고, 1967~1971년 여승생 저수지 개발로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넘어섰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상수도 건설 1, 2, 3단계를 거친 결과, 2014년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5%인데 반해,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에 100%를 달성하여 제주 전역에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체계가 구축되었다.

10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중산간 및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가뭄 시 동반되는 제한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 개발과, 송·배수관 정비,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기계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량의 유해물질까지 수질검사 항목으로 확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환경에 힘쓰고 있다.



상수도

2005년 이후 상수도 보급률 100% 유지
1일 1인당 653L 수돗물 제공

(단위 : 명, %, 톤/일, L)

연도	총 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급수량	1일 1인당 급수량
1975	402,014	388,998	94.4	107,830	46,591	120
1980	461,610	454,390	98.2	211,638	68,525	151
1985	489,464	487,877	99.7	134,500	92,199	189
1990	514,068	514,018	99.9	219,060	133,427	259
1995	519,394	519,099	99.9	272,090	171,995	331
2000	543,323	543,208	99.9	486,800	173,284	319
2005	559,747	559,719	100.0	451,548	190,476	340
2010	577,187	577,187	100.0	511,125	200,259	347
2014	621,550	621,550	100.0	452,825	405,893	653

주)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이 포함된 수치임

2014년
4 백만 MWh 이상
전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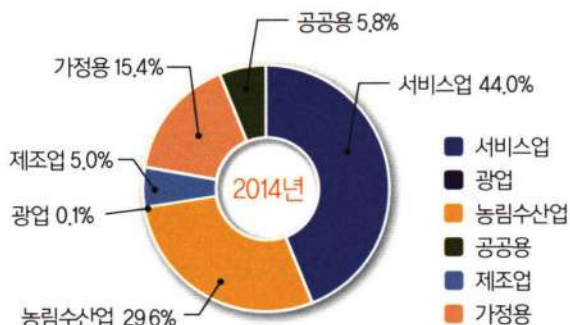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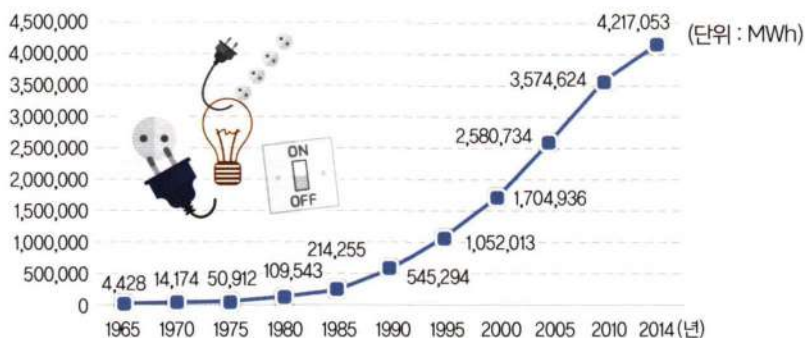
▲ '연동전기' 점화
1970년 8월 19일 제주도 연동 전기 점화식 모습.
1965년 연동전력개발위원회가 발족되어,
전기가설 사업이 진행됨
1969년 8월 집 내부 전기 공사 완료, 1970년 4월
외부전기인입공사 완료되어 각 가정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시작함

전력사용 50년새 1천배 증가

1965년 집계된 제주도 전력 사용량은 4,428MWh로, 5천미만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세기 후 2014년의 전력 사용량은 4백만MWh로, 무려 1천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 하나만으로도 5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가 얼마나 많이 변모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전력사용량을 용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비스업 분야가 44.0%(185만MWh)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농림수산업 분야 29.6%(125만MWh), 가정용 15.4%(65만MWh)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특히 가정용은 2005년 이후 급증하여 60만MWh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들어 전국적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연일 전력사용량의 최대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데,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2014년 이후 전력 예비율을 30% 이상(2015년 35.6%)으로 확보하면서 전력 사용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사용

50년 사이 전력소비량 약 1천배 증가
용도별 소비량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음

(단위 : MWh)

연도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1965	4,428	...	...	...	...	...
1970	14,174	5,273	2,709	979	316	638
1975	50,912	19,290	7,024	8,709	922	-
1980	109,543	53,327	13,992	30,224	1,260	-
1985	214,255	104,488	24,974	64,432	6,224	-
1990	545,294	200,685	37,007	196,394	78,423	2,385
1995	1,052,013	302,401	56,583	438,015	196,618	4,622
2000	1,704,936	353,504	99,139	736,550	409,809	8,633
2005	2,580,734	599,658	120,802	964,147	757,922	9,282
2010	3,574,624	602,705	219,642	1,629,902	950,177	6,816
2014	4,217,053	647,658	246,007	1,854,981	1,250,207	6,212



▲유치원 졸업식
1927년 성내교회유치원을 마치고 기념 촬영한 모습.
남자 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한복이나 학생복을,
여자아이들은 한결같이 치마저고리를 입었음.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2015년 제주도 내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기관은 어린이집(2014년) 599개소, 유치원 117개소이고, 재원중인 영유아수는 어린이집(2014년) 27,402명, 유치원 5,547명이다.

1980년대 들어 영유아교육이 정부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주도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어린이집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 연장제, 휴일 보육 등을 도입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사업, 시간 연장제 등 다양한 보육 및 유아 정책들이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14년 어린이집 599개소, 27,402명
2015년 유치원 117개소, 5,547명

(단위 : 개소, 명)

연도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보육아동	기관	원아
1970	-	-	7	366
1975	-	-	9	438
1980	-	-	15	1,126
1985	-	-	103	5,006
1990	-	-	122	5,620
1995	-	-	125	6,375
2000	307	15,709	115	5,903
2005	416	20,553	115	5,706
2010	525	24,815	109	4,743
2015*	599	27,402	117	5,547

주) 어린이집은 2014년 집계치임

초·중·고등학교



▶ 제주공림보통학교
제주공림보통학교는 제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으로 1907년 1월
설치됨. 개교 당시의 학제는
3년제였으나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4년제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6년제로 개편됨.



▶ 중학교 배정 추첨
제주에서 중학교 배정 추첨은 1970년에 시작됨.



▶ 제주농업학교 수업
사진은 3년제 제주공림농업학교이던 1938년의 수업장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은 제주고등학교.
1909년 12월 22일 제주공림농림학교(2년제)개교,
1920년 10월 제주공림농업학교 3년제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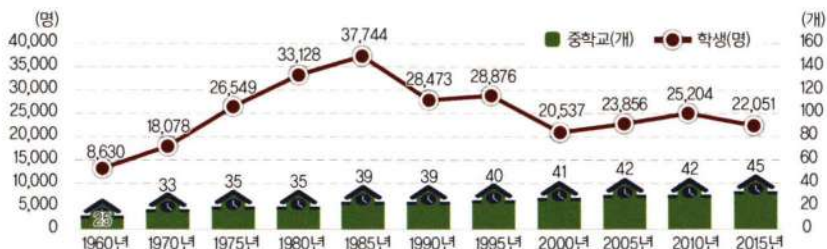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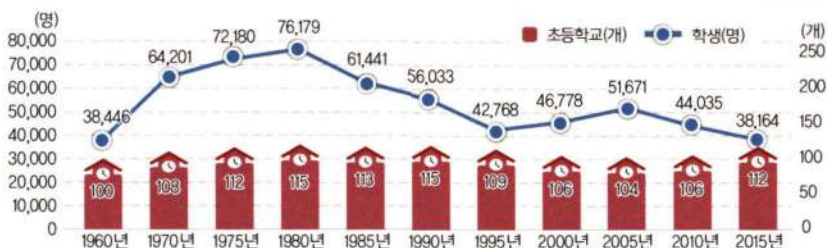
2015년
초등 학생 **38,164** 명
중학생 **22,051** 명
고등 학생 **22,984** 명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 추세

초등학교는 112개 수준, 학생수 3만8천여명, 중학교는 45개 수준, 학생수는 2만2천여명, 고등학교는 30개, 학생수는 2만3천여명 수준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21.9명으로 가장 적고, 중학교는 30.5명, 고등학교는 32.7명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교육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훌륭한 자연환경에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이 더해져, 교육을 목적으로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수요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3개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재학생 수가 2,000명에 이른다. 제주는 명품 교육도시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1960년 대비 2015년 현재 초등학교 100→112개
중학교 25→45개, 고등학교 15→30개

(단위 : 개,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학급당 학생수	학교	학생	학급당 학생수	학교	학생	학급당 학생수
1960	100	38,446	50.5	25	8,630	51.7	15	3,235	27.2
1970	108	64,201	58.3	33	18,078	58.9	22	8,069	48.9
1975	112	72,180	51.8	35	26,549	63.8	22	14,910	60.9
1980	115	76,179	53.0	35	33,128	65.2	24	24,264	60.1
1985	113	61,441	41.9	39	37,744	57.7	26	30,179	55.7
1990	115	56,033	37.5	39	28,473	48.8	27	31,146	51.3
1995	109	42,768	31.3	40	28,876	44.9	28	26,356	44.7
2000	106	46,778	32.2	41	20,537	33.8	29	23,865	39.2
2005	104	51,671	30.1	42	23,856	35.3	30	19,035	30.2
2010	106	44,035	26.3	42	25,204	35.5	30	23,796	34.9
2015	112	38,164	21.9	45	22,051	30.5	30	22,984	32.7



▲ 김중업의 옛 제주대학 본관 건물
위는 1960년대 촬영된 것으로, 일명 헬리콥터 건물로
알려진 이 사진은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으로 유명한
옛 제주대학 본관 건물

대학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주도 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은 각각 2개씩 총 4개 학교이다. 학생수는 전문대가 7,685명, 4년제 대학이 12,190명으로 대학생 수는 총 1만9천여명으로 집계된다.

통계가 집계된 1960년 270명의 전문대 학생과 729명의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봄을 맞이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3만명까지 늘어 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점차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도내 대학의 내실과 경쟁력은 탄탄하다.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3개 학교가 2015년 9월에 실시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그룹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제주국제대는 2016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었다.

또한 제주한라대는 국내 최초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으로 인가받았고, 2015년에는 제주관광대 역시 리조트카지노경영학과 등 3개 학과가 '2+4대학'(2,3년제와 4년제를 함께 운영)으로 개편 인가를 승인받았다.



전문대 및 대학교

전문대 1960년 1개교 270명 → 2015년 2개교 7,685명
4년제 1960년 1개교 729명 → 2015년 2개교 12,190명

(단위 : 개, 명)

연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학교	학과	학생	교수 1인당 학생수	학교	학과	학생	교수 1인당 학생수
1960	1	6	270	24.5	1	6	729	19.2
1970	1	1	72	9.0	2	14	832	6.6
1975	2	9	719	18.9	2	22	1,380	9.3
1980	2	11	1,755	28.3	2	33	2,924	16.2
1985	2	17	2,990	40.4	2	41	8,875	27.5
1990	2	27	3,343	32.1	2	53	9,927	31.5
1995	3	54	10,909	51.0	4	140	22,186	30.2
2000	3	71	15,386	45.7	3	90	15,372	32.2
2005	3	73	10,006	32.6	3	79	16,955	29.8
2010	3	75	8,035	32.9	2	64	10,082	17.2
2015	2	50	7,685	38.0	2	73	12,190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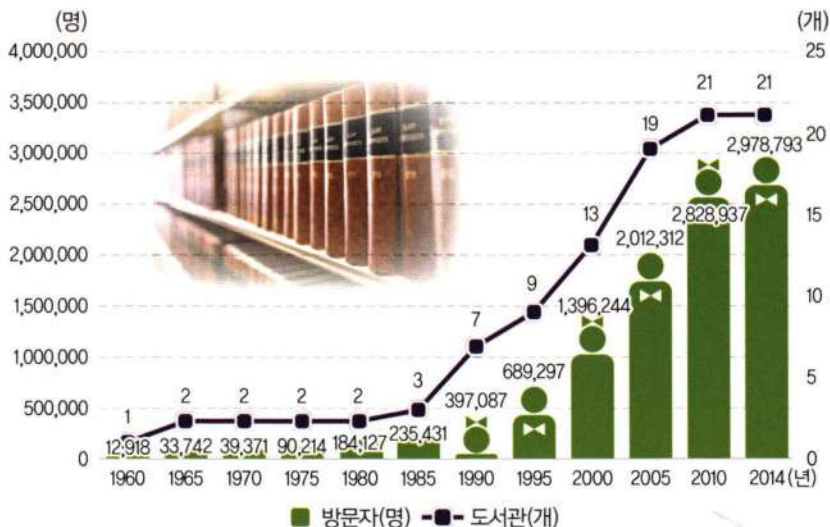
▲ 1980년대 제주도립도서관
제주도 내 최초의 근대식 공공도서관, 1957년
문을 연 제주도립도서관의 1980년대 전경.
1996년 제주시 택지개발지역 부지로 아설해
이름을 '제주도서관'으로 변경함.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1957년 독지가 박종실씨로부터 제주시 삼도동 일대의 대지와 건물을 기부 받아 제주도 최초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 당시 1만3천여명의 도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후 도서관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0여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와 방송사, 제주도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2004년 제주도에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해 현재 제주도에 21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고, 소장자료가 2백여만권, 연간 방문자 수는 3백만명이 넘는다.

특히, 2005년 이후 도서관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방문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독서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문화행사들이 도서관에서 기획·운영되면서 도서관이 더 이상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1960년 1개소 → 2014년 21개소
방문자수 1960년 12,918명 → 2014년 2,978,793명

(단위 : 개소, 석, 권, 명)

연도	도서관	좌석	자료	방문자
1960	1	108	2,512	12,918
1965	2	175	7,102	33,742
1970	2	178	10,478	39,371
1975	2	330	15,497	90,214
1980	2	360	21,744	184,127
1985	3	1,390	61,231	235,431
1990	7	2,442	151,665	397,087
1995	9	4,131	315,363	689,297
2000	13	5,203	581,794	1,396,244
2005	19	6,789	2,442,802	2,012,312
2010	21	8,057	1,825,490	2,828,937
2014	21	6,982	2,132,098	2,978,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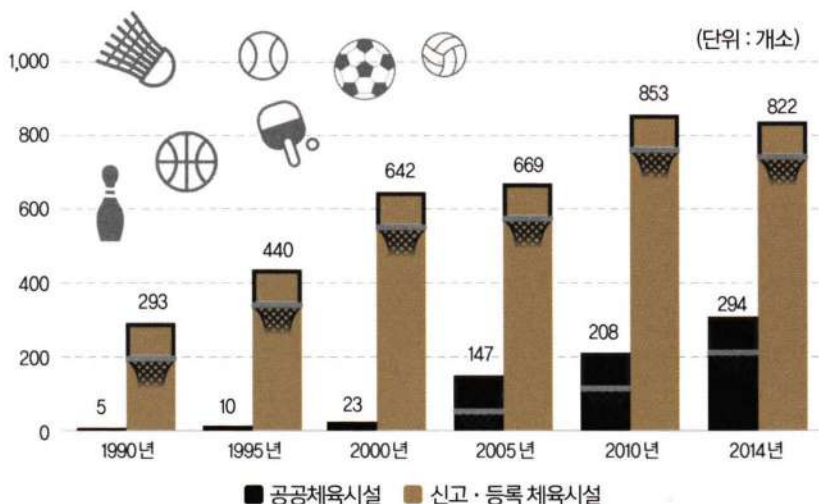


1990년 이후 체육시설 3.7배 이상 증가

2014년 기준으로 축구장과 간이운동장 등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은 294개소, 승마장,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등을 포함한 신고·등록 체육시설은 822개소로 나타났다.

도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관련 체육시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의 증가가 눈에 띈다. 1990년대 3~4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2000년 들어 늘어나면서 2014년에는 40개소로 증가했다. 골프연습장도 많이 늘어나 1990년 9개소에서 2014년 152개소로 증가했다. 이처럼 골프 관련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제주의 골프 관광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데, 2014년 제주도의 골프 관광객 수입은 6천억원대로 제주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감귤산업의 수입과 비슷한 규모이다.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단 인센티브 제공,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1990년 5개소 → 2014년 294개소
 신고·등록 체육시설 1990년 293개소 → 2014년 822개소

(단위 : 개소)

연도	공공 체육시설				신고·등록 체육시설						
	축구장	간이 운동장	기타		승마장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골프장	기타	
1990	5	-	-	5	293	-	6	77	9	3	198
1995	10	-	-	10	440	1	7	83	19	4	326
2000	23	-	-	23	642	-	9	120	45	7	461
2005	147	9	96	42	669	19	10	161	82	16	381
2010	208	15	143	50	853	27	19	168	146	28	465
2014	294	18	219	57	822	34	23	170	152	40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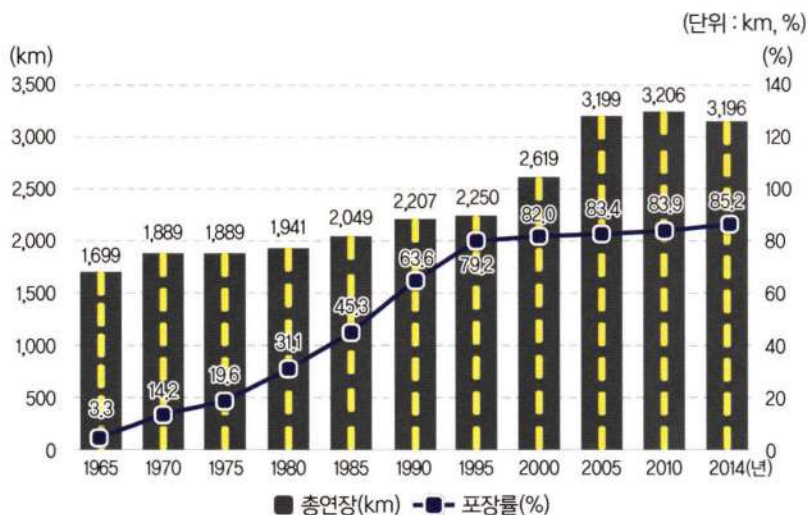


▲ 우회도로 포장공사
사진은 구좌읍 하도~종달 우회도로 포장공사 현장.
1960년대는 각종 도로개발을 비롯한 용수개발,
전기·전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됨.

사통팔달, 한시간이면 어디든지

1980년 도내 도로는 총 연장 1,941km, 포장률 31%(604km)에 불과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2014년에는 총 연장 3,196km, 포장률 85%(2,722km)에 달하고 있다. 1965년과 비교해 보면 총 연장은 1.9배, 포장도로는 무려 47.8배로 늘어난 것이다.

1961년 제주 일주도로 첫 포장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차적으로 제주항에서 제주 공항까지 포장되었고, 같은 해 관덕정에서 제주시청까지 포장되었다. 그리고 1963년 개통된 5·16도로는 총 연장 43km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권을 5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킨 '길의 혁명'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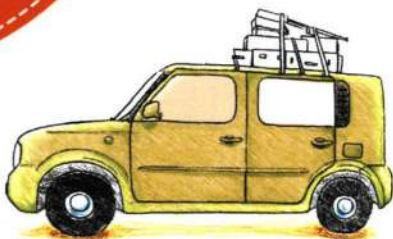
도로

총 연장 1965년 1,699km → 2014년 3,196km
포장률 1965년 3.3% → 2014년 85.2%

(단위 : km, %)

연도	총 연장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포장	포장률	포장	포장률	포장	포장률	포장	포장률
1965	1,699.0	57.0	3.3	48.0	21.7	-	-	9.0	0.6
1970	1,888.6	268.9	14.2	234.0	90.3	-	-	34.5	2.6
1975	1,888.6	369.5	19.6	259.0	100.0	21.4	7.9	89.1	6.5
1980	1,940.7	604.0	31.1	257.8	100.0	62.2	19.2	284.0	20.9
1985	2,049.2	928.1	45.3	307.7	71.5	89.4	55.6	531.0	36.4
1990	2,206.5	1,404.6	63.6	412.0	95.8	114.4	73.5	878.1	54.2
1995	2,249.7	1,781.7	79.2	429.7	100.0	202.2	83.9	1,149.8	72.8
2000	2,618.7	2,148.2	82.0	425.7	100.0	214.1	88.6	1,508.4	77.3
2005	3,198.9	2,667.0	83.4	453.5	100.0	236.7	79.0	1,976.8	80.8
2010	3,206.2	2,690.1	83.9	-	-	696.8	92.5	1,993.3	81.3
2014	3,196.3	2,722.3	85.2	-	-	682.4	93.0	2,039.9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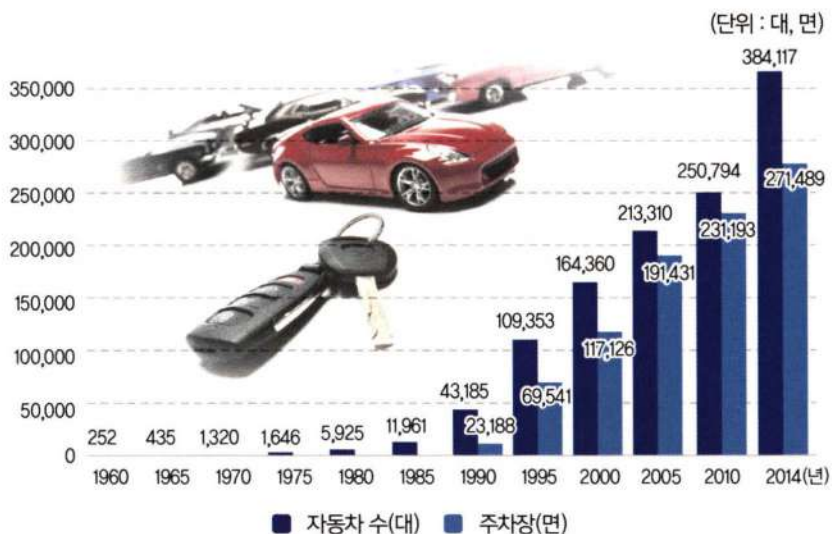
주) 2007년부터 일반국도가 지방도로 분류



자동차 보유비율 전국 최고

최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40만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구 유입에 따른 자연적 증가 외에도 관광시장 호황에 따른 렌터카 시장 확대가 겹쳐 제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21대로, 전국 평균(0.97대)을 웃돌고 있어 타 지역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차장은 2014년 기준 40,250개소, 271,4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1% 수준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자동차 수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공영 주차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 및 주차장

2014년 자동차 384,117대
주차장 확보율은 91.2%

(단위 : 대, 개소, 면, %)

연도	자동차					주차장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개소	면수	확보율
1960	252	48	41	162	1	-	-	-
1965	435	122	75	238	-	-	-	-
1970	1,320	568	219	527	6	-	-	-
1975	1,646	757	300	562	27	-	-	-
1980	5,925	1,952	590	3,359	24	-	-	-
1985	11,961	3,934	1,448	6,540	39	-	-	-
1990	43,185	19,606	6,043	17,499	37	3,188	23,188	53.7
1995	109,353	64,724	9,523	34,979	127	11,489	69,541	63.6
2000	164,360	95,565	19,344	49,208	243	20,317	117,126	71.3
2005	213,310	135,644	17,314	59,947	405	29,797	191,431	89.7
2010	250,794	168,357	18,872	63,015	550	35,366	231,193	92.2
2014	384,117 (297,618)	293,527 (210,352)	20,634 (18,225)	69,177 (68,270)	779 (771)	40,250	271,489	91.2

주) 1) ()는 역외차량 제외한 자동차 대수임.

2) 주차장 확보율 = (자동차 수/주차면 수)×100 *자동차 수는 역외차량 제외함.



여섯번째 이야기

안전/보건/복지

Safety &
Health Care &
Welfare

- 086** 풍수해 발생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들
- 088** 교통사고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증가 추세
- 090** 의료기관
100세까지 건강하게
- 092** 의료기관 종사인력
의료인력 1인당 89명의 도민 담당
- 094** 건강보험 적용인구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한 삶 보장!
- 096** 국민연금 가입자
1990년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10배 가까이 증가
- 098**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급자 2만명, 맞춤형 혜택
- 100** 사회복지시설
튼튼해지는 복지시설 인프라

2000년대 이후

태풍 나리
피해규모 가장 커



▲ 태풍 '올가'
1999.8.3. 제7호 태풍 '올가'가 제주도를 강타함.
순간 최대풍속 43m에 달하는 살인적인 강풍.
제주도에 가로수 1,000여그루가 뽑히거나 부러져 차량통행을 막았고,
전신주가 넘어져 3만여 가구가 정전됨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들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를 말하며, 주로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한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는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역이다. 태풍이 제주를 강타하면 한라산과 부딪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진로를 틀게 된다.

1950년대 이후 가장 피해가 큰 태풍은 이재민 규모로는 1959년 사라, 사망자 규모로는 1985년 브렌다, 피해액 규모로는 2007년 나리였다. 특히 태풍 나리의 경우, 피해액이 131억원으로 기존의 태풍과는 규모가 달랐다. 피해액 차이가 가장 컸고, 사망자 또한 15명이나 발생하였다.

사라

이재민 63,406명
사망자 11명
피해액 28억원

1959

벤티

이재민 8,865명
사망자 3명
피해액 7억원

1966

리타

이재민 955명
사망자 1명
피해액 9억원

1972

브렌다

이재민 377명
사망자 18명
피해액 50억원

1985

올가

사망자 9명
피해액 36억원

1999

나리

이재민 9,602명
사망자 15명
피해액 131억원

2007

1960

카르멘

이재민 18,199명
사망자 1명
피해액 10억원

1970

빌리

이재민 1,573명
사망자 8명
피해액 21억원

1979

팁

이재민 429명
사망자 9명
피해액 32억원

1987

셀마

이재민 49명
사망자 17명
피해액 14억원

2002

루사

이재민 505명
피해액 61억원

2012

블라벤

이재민 407명
피해액 57억원



2014년
4,484건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는 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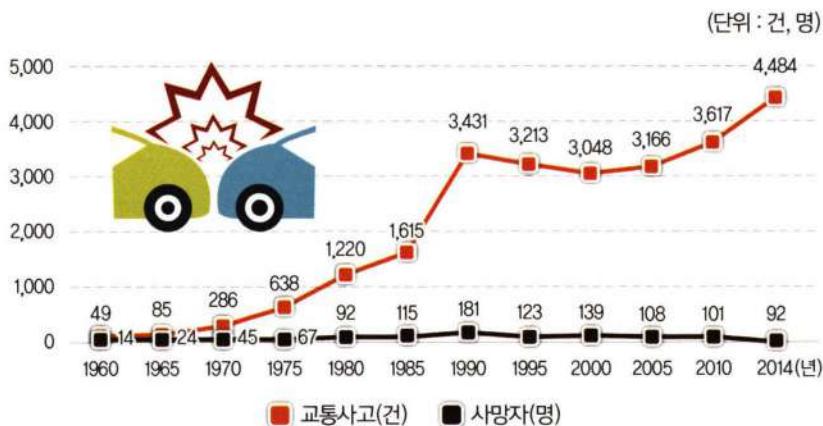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증가 추세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제주도내 교통사고 건수는 4,4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제주도(10만 명 당 771.7건)라고 한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운전 비율이 높은 곳이다. 관광객의 렌트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여행객이 포함되지 않은 도민 인구수로만 나누어 인구수 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운전자 법규 준수 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위반과 음주 집중단속, 신호운영체계 개선, 횡단보도 확대 등 총력을 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음.

(단위 : 건, 명)

연도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1960	49	14	45
1965	85	24	167
1970	286	45	415
1975	638	67	572
1980	1,220	92	1,128
1985	1,615	115	1,975
1990	3,431	181	4,629
1995	3,213	123	4,403
2000	3,048	139	4,237
2005	3,166	108	4,916
2010	3,617	101	5,374
2014	4,484	92	6,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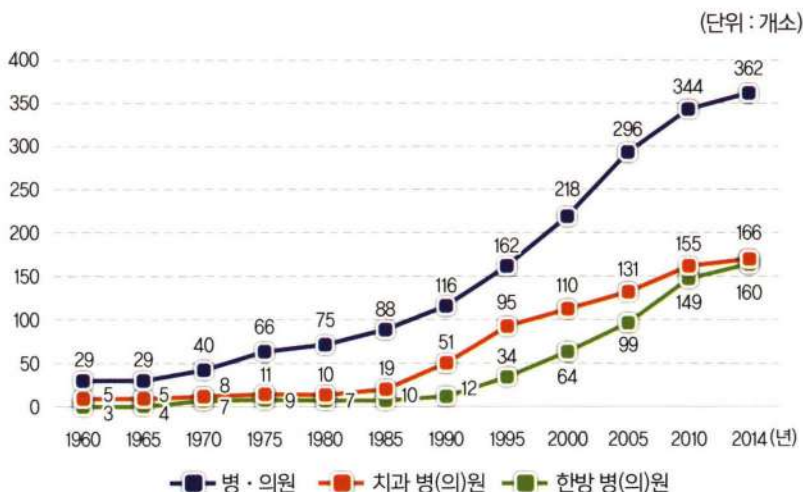
▲ 1950년대의 보건진료
1952년 제주시 보건소 의사가 어린이를 진찰하는 모습.
이 사진은 제주시에 의료시설이 거의 드물던 시절 치료를
받는 장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697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인 362개소가 병의원이고, 치과 병의원은 166개소, 한방병의원은 160개소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부족했던 1960년도와 비교해보면 병의원은 약 12배 이상 늘었고, 치과병의원은 33배, 한방병의원은 53배 증가하였다.

병의원수의 증가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독감접종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되는 등 제주도내 의료환경은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기관

1960년 대비 병·의원 12배, 치과병(의원) 33배,
한방병(의)원 53배 증가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기타병(의)원
1960	52	29	5	3	15
1965	45	29	5	4	7
1970	61	40	8	7	6
1975	93	66	11	9	7
1980	99	75	10	7	7
1985	125	88	19	10	8
1990	184	116	51	12	5
1995	296	162	95	34	5
2000	399	218	110	64	7
2005	534	296	131	99	8
2010	661	344	155	149	13
2014	697	362	166	160	9



의료인력 1인당 89명의 도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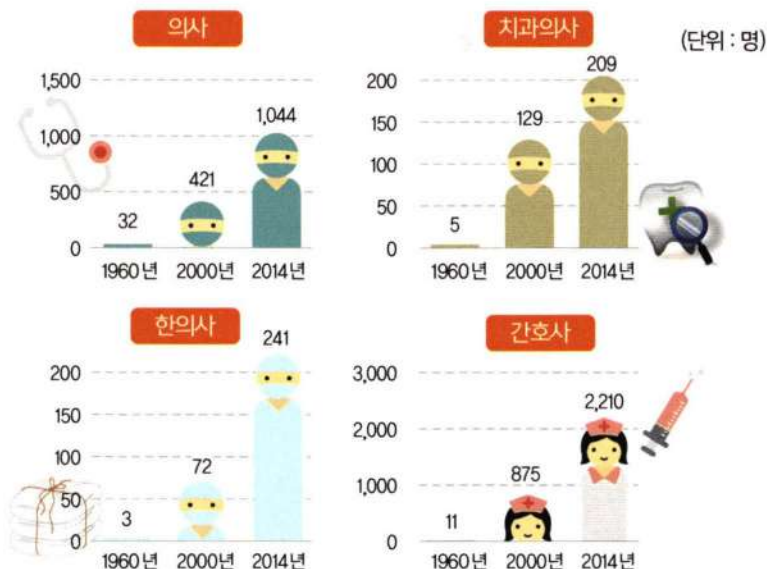
1960년대 제주도에 32명의 의사와 5명의 치과의사, 3명의 한의사, 11명의 간호사가 종사하여 도민을 돌보고 있었고, 의료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565명이었다.

이후 의료인력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6,986명의 의료 인력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1인당 인구 89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사는 2014년 기준 1,044명으로 의료인 1명당 619명의 도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0년 1,371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인구수 대비 의료 인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의사 역시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총 241명이 집계되어 2010년 대비 1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약사(개인약국 약사 제외) 인력은 34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간호 인력은 총 3,6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기관 종사인력

2005년 대비 2014년 의료인력 3천명 이상 증가

(단위: 명)

연도	합계	의료인력 1인당 담당 도민수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기타 의료인력
1960	79	3,565	32	5	3	13	11	-	15
1965	137	2,383	38	10	6	36	22	-	25
1970	195	1,874	56	17	8	83	25	-	6
1975	273	1,508	87	14	9	110	46	-	7
1980	310	1,493	99	11	9	-	163	-	28
1985	603	810	157	40	10	149	233	-	14
1990	1,251	411	176	56	12	7	318	488	194
1995	1,908	272	300	114	34	10	589	554	307
2000	2,557	212	421	129	72	8	875	531	521
2005	3,684	152	633	155	109	16	1,318	678	775
2010	4,746	122	744	174	139	22	1,651	1,029	987
2014	6,986	89	1,044	209	241	34	2,210	1,405	1,599

주) 1988년 이후 개인약국의 약사 미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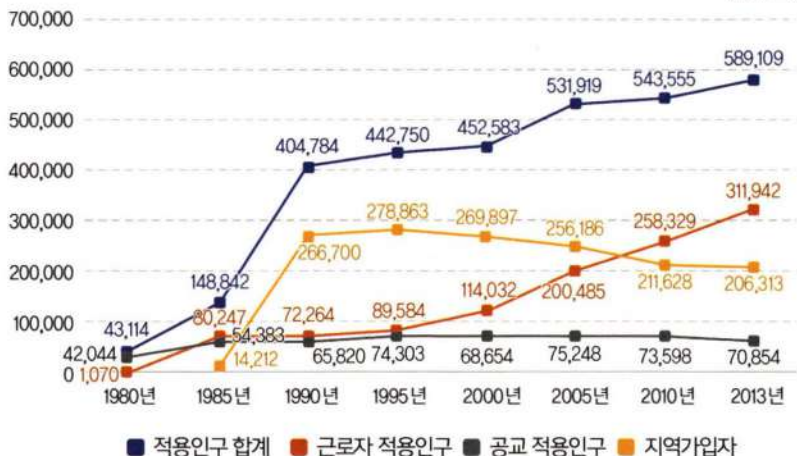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했다. 2000년 7월부터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편되었다.

2014년 현재 제주도 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쳐 589,109명으로, 전체 인구의 94.8%에 해당한다. 이중 근로자 적용 인구가 311,942명이고 지역가입자는 206,313명이다.

건강보험의 근로자 적용인구는 2005년에 20만명을 넘겼고, 2013년에는 약 30만명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수가 2000년 27만명 수준에서 2014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근로자 적용인구로 상당수 전환됨에 따른 변화이다.

(단위 : 명)



건강보험 적용인구

2014년 건강보험 적용비율 94.8%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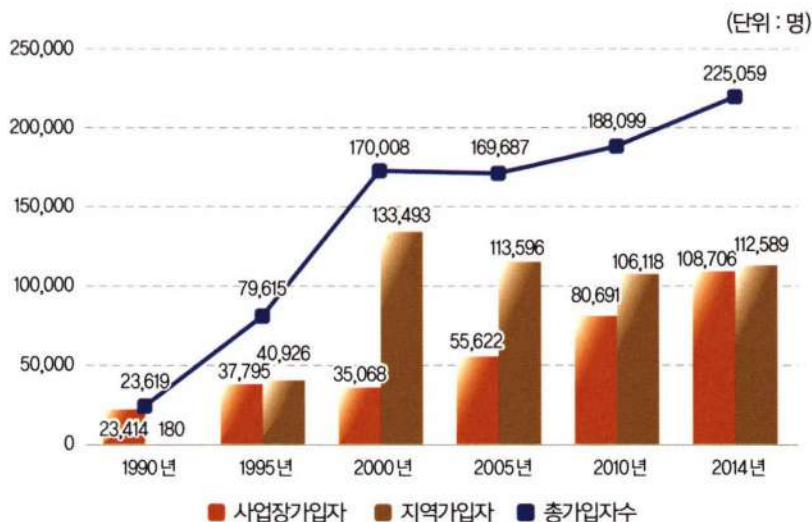
연도	적용인구 합계	근로자 적용인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인구			지역 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1980	43,114	1,070	350	720	42,044	10,237	31,807	-
1985	148,842	80,247	21,321	58,926	54,383	12,659	41,724	14,212
1990	404,784	72,264	21,693	50,571	65,820	15,618	50,202	266,700
1995	442,750	89,584	28,690	60,894	74,303	18,794	55,509	278,863
2000	452,583	114,032	40,647	73,385	68,654	18,462	50,192	269,897
2005	531,919	200,485	67,954	132,531	75,248	21,294	53,954	256,186
2010	543,555	258,329	98,020	160,309	73,598	22,554	51,044	211,628
2014	589,109	311,942	131,675	180,267	70,854	23,066	47,788	206,313



1990년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10배 가까이 증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 제도이다. 지난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을, 1999년에는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0년에는 제주지역 총 가입자수가 23,619명에 불과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농촌지역까지로 가입 범위를 넓힌 1995년에는 가입자수가 79,615명으로 늘어났다. 도시지역까지 지역가입자를 늘린 1999년 이후에는 가입자수가 대폭 늘어나 2000년에는 17만명을 넘었고, 2014년에는 22만명을 넘었다. 시행 초기에 비해 총 가입자수는 9.5배, 사업장 가입자는 4.6배, 지역가입자수는 무려 625.5배나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1990년 23,414명 → 2014년 108,706명

(단위 : 명)

연도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 업 장	사업장가입자			
1990	23,619	707	23,414	180	-	25
1995	79,615	1,493	37,795	40,926	759	135
2000	170,008	2,122	35,068	133,493	235	1,212
2005	169,687	6,399	55,622	113,596	228	241
2010	188,099	10,999	80,691	106,118	418	872
2014	225,059	16,424	108,706	112,589	1,177	2,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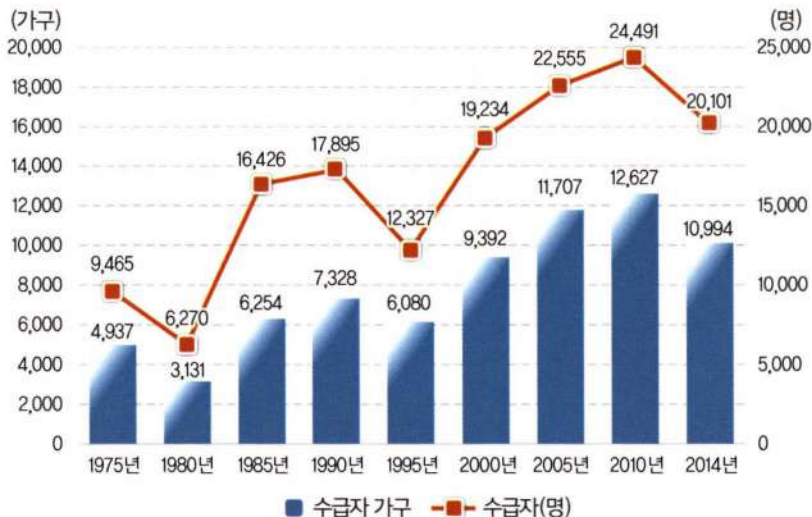
수급자 2만명, 맞춤형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공공부조 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2014년 기준 10,994가구이고, 수급인원은 20,101명이다. 수급가수와 수급자수는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다시 2만명대로 늘어나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을 일시에 중지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한다. 맞춤형 제도의 시행으로 제주도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가구,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0년 이후 2만명 수준

(단위: 가구, 개소, 명)

연도	총 수급자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인원
1975	4,937	9,465	4,937	9,465	-	-	-	-
1980	3,131	6,270	3,131	6,270	-	-	-	-
1985	6,254	16,426	6,254	16,426	-	-	-	-
1990	7,328	17,895	7,328	16,904	-	-	14	991
1995	6,080	12,327	6,080	11,476	-	-	...	851
2000	9,392	19,234	9,392	18,062	-	-	19	1,172
2005	11,707	22,555	11,234	20,124	473	755	38	1,676
2010	12,627	24,491	12,504	22,138	123	246	56	2,107
2014	10,994	20,101	9,943	15,936	1,051	2,023	95	2,142



튼튼해지는 복지시설 인프라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취약한 편이었으나, 맞춤형 사회복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노인복지시설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4년에는 총 578개소 까지 증가했다. 이 중 549개소가 노인여가, 주거, 의료 등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이고, 여성복지시설은 10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시설 14개소로 집계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실버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는 고령사회 대비 등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1970년 7개소 → 2014년 578개소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노인복지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여가	노인주거	노인의료	재가노인			
1970	7	-	-	1	-	1	5	-
1975	7	-	-	1	-	1	5	-
1980	7	-	-	1	-	1	5	-
1985	8	-	-	2	-	1	5	-
1990	76	63	-	5	-	1	6	1
1995	212	199	-	6	-	1	5	1
2000	313	294	1	9	-	3	5	1
2005	423	377	1	19	10	3	5	8
2010	535	410	2	48	49	9	5	12
2014	578	435	2	62	50	10	5	14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
이야기

